

2016 여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2016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이상민 smlee@krei.re.kr 박한울 phu87@krei.re.kr 박지원 jione1105@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262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5
3. 소비	6
4. 물가	9
5. 금융·환율	14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촌 물가	17
2. 농림어업 취업자	20
3. 농축산물 수출입	22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7
2. 엽근채소	31
3. 양념채소	37
4. 과일	47
5. 과채	53
6. 축산	61

특별주제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71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83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16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수출 등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년 대비 3.2% 성장함.
- 2016년 2/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가 늘어 전분기에 비해 0.9%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2.9% 증가함.
- 2016년 하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중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는데 힘입어 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 2016년 2/4분기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음. 반면,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함.
- 2016년 6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 및 휘발유·경유 판매, 백화점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됨. 소비심리지수는 전월과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 상승함.
- 2016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0.9% 상승하는데 그쳐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음. 한편,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신선 채소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대비 2.0% 상승함.
- 2016년 5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대비 0.5%, 광의통화(M2)는 0.7% 증가함.
- 2016년 6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단기와 장기 모두 하락함.
- 2016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으나, 원/100엔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엔화 강세로 소폭 상승하여 원화가치는 달러화 대비 강세, 엔화대비 약세를 보임.

II. 농촌경제 동향

- 2016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0.9%, 7.0%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가격지수는 미곡, 서류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각각 8.7%, 2.4% 하락함. 채소류는 배추와 마늘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보다 2.1%, 전분기보다 13.4% 하락함. 과실류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0.8%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15.7% 하락함. 축산물은 대부분 축종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7.7%, 6.0% 상승함.
- 2016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0.3%, 0.8%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가축류 이외에 비료, 영농광열을 포함한 대부분 농업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보다 1.2% 하락함. 농촌임료금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3.5%, 전분기보다 2.5% 상승함. 이에 따라 가축류를 제외하고 산출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4.0%, 전분기보다 0.1% 하락함.
- 2016년 2/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3.2%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6.9% 하락함.
 - 전년과 비교했을 때 농업투입재가격의 하락률이 농가판매가격의 하락률보다 더 크게 나타나 농업경영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농가판매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농업경영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2/4분기 계절조정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각각 5.9%, 3.2%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하면 전분기에 비해 취업자수가 늘어났으나, 2/4분기의 취업자수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림어업부문 취업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
- 201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0%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5.1% 하락함.
 -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출액 증가로 농산물은 전년 동기에 비해 5.4% 증가한 반면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6.2%, 0.9% 감소함. 수입의 경우에는 모든 부류에서 수입액 감소가 나타났는데, 농산물은 4.7%, 축산물은 1.9%, 임산물은 8.7% 감소를 보임.

Ⅲ. 특별주제 시사점

1.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 브렉시트(Brexit)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정치적 사건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대형 금융사의 파산으로 직접적인 금융시스템 훼손을 유발하였으나 브렉시트는 경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사건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임.
 - * 브렉시트는 영국의 이민자 급증에 따른 부담, EU내 경제규모 대비 영국의 낮은 영향력, EU 부담금의 부담, EU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감 등으로 논의가 시작됨. 2016년 6월,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 51.9%, 반대 48.1%로 브렉시트가 결정됨.
- 브렉시트 이후 국내외 금융지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작음. 그러나 2년간의 탈퇴 협상경과에 따라 국제 금융지수의 변동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는 EU와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 농축산식품의 對영국 교역비중을 감안하면, 한·영국 농축산식품 교역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경기침체 및 금융지수 변동 등 간접적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 2015년 영국산 수입액은 2.8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0.9% 정도이며, 영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0.5%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기존 한·EU FTA이행을 점검하고, 가격 경쟁력강화 및 영국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한·영 FTA 및 EU에서 탈퇴하는 국가와의 개별 농업협상 준비가 필요함.
 - 달러가치 상승 및 일본의 엔고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축산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국·일본시장 확대를 위한 對미국·일본 농축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함.
 -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 등 원자재가격 및 환율변동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수출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불균형과 같등으로 야기된 브렉시트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간, 산업 간, 특히 농업내부의 소득불균형과 곡물과 축산농가 등 작목 간 불균형과 같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 우리나라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낮으며, 최근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홍삼제품 등 주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도 활발하지 않음. 반면,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은 최근 7% 내외의 빠른 성장을 하였으며, 7%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엄격한 사전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엄격한 규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미국, 일본 등의 나라도 안전성과 기능성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유사한 엄격한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사전 승인 제도와 함께 제조업자 책임하에 식품의 기능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신고 제도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 경우 기능성에 대한 입증 의무와 안전성 관리는 제조업자가 책임지며 정부 기구가 이를 관리·감독함.
-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제품의 비중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다양하지 못함.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가 늘고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법령 내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능성 식품 표시제 도입이 필요함. 새로운 기능성 식품 표시제 도입 시 허위·과장 표시,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식품산업진흥법령 내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함. 현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는 없으나, 표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농가가 기능성을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법령에 위배될 우려 없이 농가가 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함.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16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내수가 회복세를 보여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음.
 - 그러나 민간소비 개선 폭이 크지 않고 순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0.7% 성장하는 데 그쳐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민간소비와 수출 등이 증가세로 전환됨.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2.9%,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하였음.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어 전분기 대비 2.9% 증가한 반면, 전년 동기대비로는 2.5% 감소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가 늘어 전분기 대비 0.9% 증가함.
 - 수출은 반도체,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이 늘어 전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는 1.7% 증가하였음.
 - 수입은 원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과 비교해서는 3.3%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상민 연구위원(smlee@krei.re.kr), 박한울 연구원(phu87@krei.re.kr)이 작성하였음.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2016.7.26)」와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2016.7.14)」,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2016.7)」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4	2015 ^P					2016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GDP 성장률	3.3	2.6	2.4	2.2	2.8	3.1	2.8	3.2 (0.7)
최종소비지출	2.0	2.4	1.9	2.1	2.3	3.4	2.7	3.4 (0.7)
(민간)	1.8	2.2	1.5	1.7	2.2	3.3	2.2	3.2 (0.9)
총고정자본형성	3.1	3.8	2.4	2.4	5.0	5.6	3.6	5.1 (2.6)
(건설)	1.0	3.9	0.7	1.4	5.5	8.3	9.6	10.8 (2.9)
(설비)	5.8	5.3	5.7	5.2	6.8	3.6	-4.6	-2.5 (2.9)
총수출	2.8	0.8	0.6	-0.6	0.7	2.5	0.7	1.7 (0.9)
총수입	2.1	3.2	2.0	1.7	3.2	6.0	1.8	3.3 (1.9)

주 1. 2015^P, 2016^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4	2015 ^P					2016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농림어업	3.6	-1.5	7.5	-4.0	-0.8	-5.0	-2.4	2.0(-6.1)
제조업	3.5	1.3	0.6	0.5	1.5	2.4	1.9	2.3 (1.3)
서비스업	3.4	2.9	3.1	2.9	2.8	2.8	2.6	2.8 (0.5)
(도소매 및 음식숙박)	2.4	2.1	1.7	2.0	1.6	3.1	2.5	3.7 (0.8)
(금융 및 보험업)	5.6	6.3	6.3	6.8	7.4	4.5	4.6	2.9 (0.5)
(부동산 및 임대)	3.3	1.9	2.1	1.7	1.9	1.9	1.5	1.0(-0.2)
(보건 및 사회복지)	6.8	5.6	7.1	4.6	4.8	5.9	6.9	8.9 (0.9)

주 1. 2015^P, 2016^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원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는 전분기 대비 농림어업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했으나, 제조업은 증가로 전환되고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농림어업은 재배업과 축산업 생산이 줄어 전분기 대비(계절조정) 6.1% 감소 하였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원계열) 2.0% 증가함.
 - 제조업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3%,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함.

-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감소했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함.
- 2016년 경제(GDP)성장률은 내수 정체와 수출 부진으로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상반 3.0% → 하반 2.4%)됨.
 - 국내 경기는 1/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지출부문별로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전망이다.
 - 2017년 중 성장률은 2.9%로 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는 2/4분기중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 가계소득 여건 개선이 제한적인 가운데, 개별소비세 재인하 종료 등으로 하반기에는 승용차 판매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금 감면, 대규모 할인행사 등의 다각적인 정부 대책은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IT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의 재고수준이 높고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추가 설비 확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반도체는 글로벌 초과공급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신규투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디스플레이의 경우 저부가가치 패널에 대한 투자유인이 미약함. 반면, 차세대(OLED) 패널, 친환경차 등의 부문에서는 높은 투자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주택 초과공급 상황이 확대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축소될 소지가 있음.
 - 비주거용 건물도 상업용 건물의 수익성 개선에 따른 수주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상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국의 수입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기 개선세도 약화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5	2016 ^{e)}			2017 ^{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6	3.0	2.4	2.7	2.6	3.1	2.9
민간소비	2.2	2.7	1.9	2.3	2.0	2.3	2.2
설비투자	5.3	-3.6	-0.6	-2.1	4.5	2.1	3.2
건설투자	3.9	10.1	3.9	6.7	23	3.6	3
상품수출	0.5	0.1	1.7	0.9	3.1	2.2	2.6
상품수입	2.0	0.6	0.1	0.3	3.0	1.1	2.1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6.7.14.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참고

2. 2016^{e)} 2017^{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16년 2/4분기 취업자수는 2,639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 개선흐름과 작년 메르스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부문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됨.
 -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고용안정성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감소세는 지속됨.
 -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이 크게 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 2016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742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하였음.
 -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은 경기 부진 심화, 경남과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률 상승세 지속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 하방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됨.
 - 서비스업은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14	2015				20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6,356	27,140	27,166	26,989	26,708	27,415	1.0
(경제활동참가율)	62.4	62.6	61.5	63.2	63.0	62.5	61.7	63.2	-
취업자	25,599	25,936	25,267	26,098	26,237	26,143	25,554	26,387	1.1
· 농림어업	1,452	1,345	1,092	1,505	1,494	1,289	1,038	1,419	-5.7
· 광공업	4,343	4,500	4,428	4,479	4,525	4,566	4,561	4,522	1.0
(제조업)	4,330	4,486	4,418	4,466	4,511	4,550	4,544	4,503	0.8
· 건설업	1,796	1,823	1,756	1,857	1,844	1,835	1,748	1,829	-1.5
· 도소매·음식숙박업	5,889	5,962	5,984	5,927	5,979	5,958	5,929	5,968	0.7
실업자	937	976	1,089	1,042	929	845	1,153	1,028	-1.3
실업률(계절조정)	-	-	3.6	3.8	3.6	3.5	3.8	3.7	-2.6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6.6월 고용동향(2016.7.13.)」와 「최근경제동향(2016.7.)」,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6월 고용동향(2016.7.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16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반면,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음.
- 2016년 5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1%), 의복 등 준내구재(1.2%),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1%)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0.6% 증가함(전년 동월대비 5.1% 증가).
- 6월 소매판매의 경우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 백화점 매출액, 휘발유·경유 판매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됨.

소 비 동 향

단위: %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P	5월 ^P
민 간 소 비	-	-	1.5	1.7	2.2	3.3	2.2	-	-
소 매 판 매	2.0	3.9	2.2	3.4	3.6	6.1	4.6	4.2	5.1
(내 구 재)1	5.1	10.2	4.3	0.8	2.0	8.2	-6.3	-2.0	1.1
(준내구재)2	-0.8	-1.2	-2.0	-1.0	1.8	2.8	-2.0	-0.2	1.2
(비내구재)3	1.6	2.5	0.6	1.2	0.7	0.3	2.6	0.4	0.1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5년^P, 2016년 1월^P, 2월^P은 전망치임.

5. 민간소비와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는 전분기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기획재정부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6.7)」와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1/4분기 가계 동향(2016.5.27)」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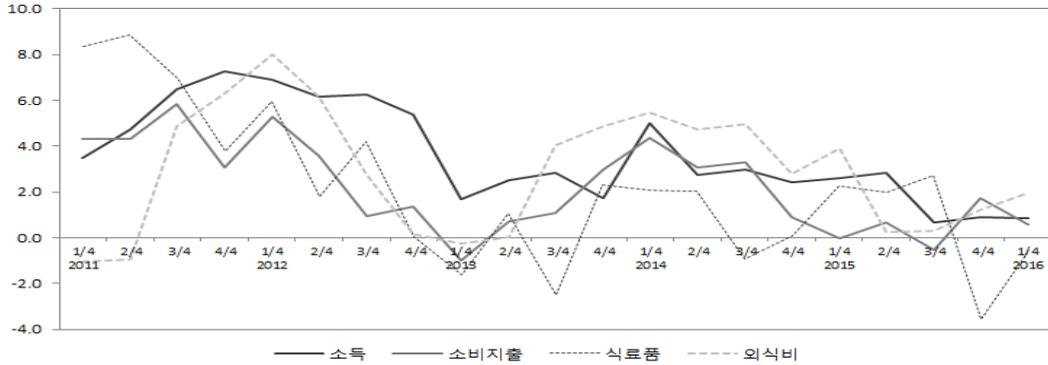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소득	3.4	5.0	2.8	3.0	2.4	1.6	2.6	2.9	0.7	0.9	0.8
(경상소득)	3.2	4.4	2.9	3.0	2.3	1.6	2.8	2.1	0.8	1.1	0.8
(비경상소득)	8.6	20.9	-0.4	2.2	8.1	1.6	-2.1	25.9	-4.7	-4.8	2.3
소비지출	2.8	4.4	3.1	3.3	0.9	0.5	0.0	0.7	-0.5	1.7	0.6
(식료품·비주류음료)	0.8	2.1	2.0	-0.9	0.1	0.8	2.3	2.0	2.7	-3.5	-0.6
(의류·신발)	-0.1	-1.2	2.3	2.9	-2.9	-4.4	-5.3	-3.4	-3.5	-5.2	-1.8
(교통)	8.6	12.2	5.9	13.7	3.1	-3.7	-4.5	-4.4	-12.5	6.7	2.5
(교육)	0.4	2.6	0.5	-1.1	-0.5	-0.4	-1.6	-1.6	-1.1	3.2	-0.4
(음식·숙박)	4.7	6.1	4.9	5.2	3.3	1.4	3.8	0.3	0.4	1.1	2.2

자료: 통계청

- 2016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5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함.
 -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이 0.3% 증가하였고 사업소득은 3.3%, 이전소득은 0.7% 증가한 반면, 이자소득 등이 줄어 재산소득은 21.0% 감소함.
- 2016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52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실질기준 0.4% 감소)함.
 - 자동차 구입 및 외식비 증가로 인해 교통(2.5%), 음식·숙박(2.2%) 등이 증가하였음. 반면, 의류 및 곡물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의류신발(1.8%), 식료품·비주류음료(0.6%) 등은 감소하였음.

식료품 및 음식 소비지출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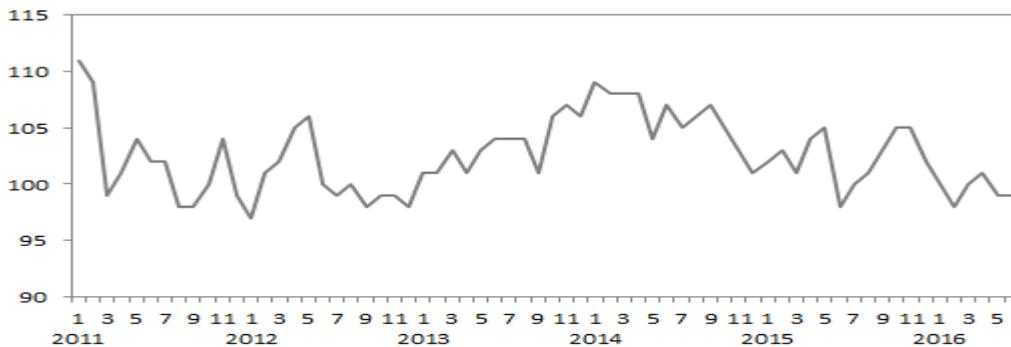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 2016년 1/4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하였음.
 - 육류 지출은 3.8% 증가하였으나, 가격하락으로 곡물(12.4%), 유제품(7.1%), 과일·가공품(4.7%) 등의 지출이 감소함.
- 2016년 6월 소비심리지수⁵⁾는 99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98)대비 1.0% 상승하였고, 전월(99)과 동일함.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4. 물가⁶⁾

- 2016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100을 기준)는 110.7로 전년 동기대비 0.9% 상승함.
 - 농축산물가격의 상승세 둔화 및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는 1%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보임.
- 상품 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0.9%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물가지수는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상승함.
 - 신선 채소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류와 전분기·수도·가스 가격은 하락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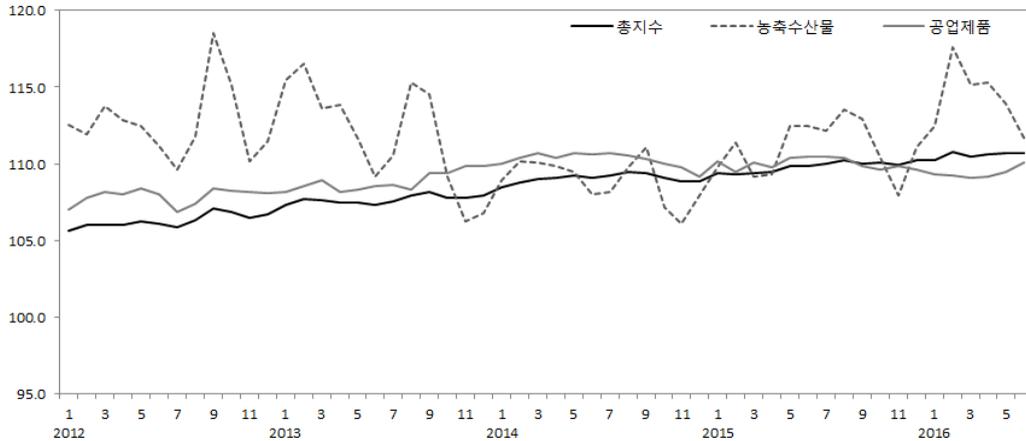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9.0 (1.2)	109.8 (0.7)	109.4 (0.6)	109.7 (0.5)	110.1 (0.6)	110.1 (1.1)	110.5 (1.0)	110.7 (0.9)
상 품	111.1 (0.9)	110.3 (-0.7)	110.6 (-0.6)	110.5 (-0.8)	110.3 (-1.0)	109.9 (-0.4)	109.9 (-0.6)	109.5 (-0.9)
농축수산물	108.9 (-2.7)	111.1 (2.0)	110.1 (0.4)	111.4 (2.1)	112.9 (2.9)	109.8 (2.5)	115.1 (4.5)	113.6 (2.0)
공업 제품	110.3 (1.4)	110.0 (-0.2)	109.9 (-0.5)	110.2 (-0.4)	110.3 (-0.2)	109.7 (0.0)	109.2 (-0.6)	109.6 (-0.6)
서 비 스	107.4 (1.5)	109.4 (1.8)	108.4 (1.5)	109.1 (1.6)	109.9 (1.9)	110.2 (2.2)	111 (2.4)	111.5 (2.2)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6) 물가 부문은 기획재정부 「201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2016.7.1.)」, 통계청 「2016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2016.7.1.)」, 한국은행 「2016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2016.7.19.)」와 「2016년 6월 수출입 물가지수(2016.7.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16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7로 전년 동월대비 0.8% 상승함.
 - 석유류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임.
- 지출목적별로는 전월에 비해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주택·수도·전분기·연료, 음식·숙박 등은 상승하였고, 식료품·비주류음료, 오락·문화 등은 하락함. 의류·신발, 보건, 통신, 교육 등은 변동이 없음.
 -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음식·숙박, 교육, 의류·신발, 오락·문화, 보건,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은 상승한 반면, 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은 하락하였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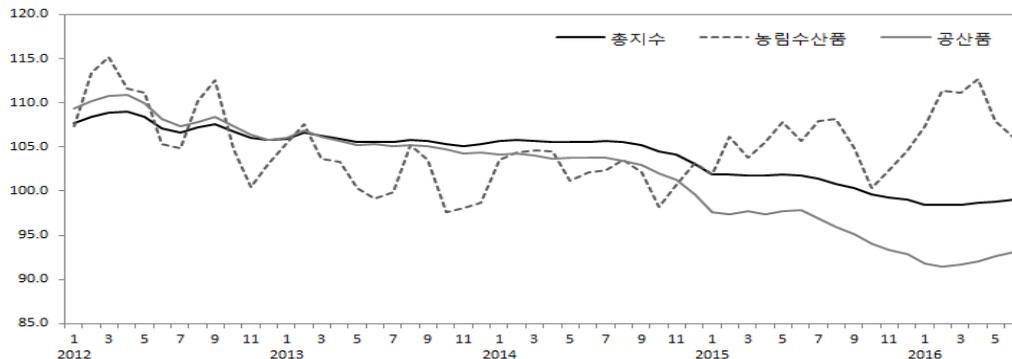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2014	2015		201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8.9	111.1	110.1	111.4	115.1	113.6	2.0	-1.3
농산물	105.3	106.7	107.1	107.3	113.2	108.0	0.6	-4.6
곡물	123.3	119.9	120.7	119.9	114.6	111.1	-7.3	-3.1
채소	84.8	93.2	94.6	92.4	111.0	101.4	9.7	-8.6
-배추	54.4	61.5	43.6	74.1	70.7	104.7	41.3	48.1
-무	50.5	66.0	52.6	61.2	67.9	82.2	34.3	21.0
-양파	86.7	116.1	80.3	100.1	169.7	124.0	23.9	-26.9
-마늘	88.4	108.9	93.4	100.1	136.1	154.1	53.9	13.2
-대파	57.8	81.2	68.1	83.4	109.9	89.2	7.0	-18.9
과실	111.5	106.1	104.6	109.0	105.5	105.3	-3.4	-0.2
축산물	110.8	114.9	110.5	114.6	115.1	118.2	3.2	2.7
수산물	115.0	116.2	117.3	116.7	118.9	121.4	4.0	2.1

자료: 통계청

- 2016년 2/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13.6으로 전년 동기대비 2.0%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보다는 1.3% 하락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0.6%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4.6% 하락함. 행락철 수요 증가로 축산물 가격은 상승했으나, 곡물, 양파와 대파 등의 신선채소류 및 과실류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한국은행

- 생산자물가는 전년대비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6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98.8로 전년 동기대비 2.9%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보다는 0.3% 상승함.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쌀, 사과, 견고추 등의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상승폭이 축소됨. 전월에 비해서는 배추, 절화류, 토마토 등의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는 1.7% 하락하였음.
 - 한편,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의 공산품 및 전력·수도·가스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보다 하락하였음.
- 2016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79.9로 전년 동기대비 4.7% 하락함. 6월 수출물가는 80.6으로 농림수산물 및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으나, 원화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5.0%로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 9.8% 하락함.
- 2016년 2/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1.7로 전년 동기대비 14.9% 상승함. 6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2.9로 전월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14.6% 상승함.
- 2016년 2/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79.8로 전년 동기대비 4.8% 하락하였음. 6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상승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로는 5.0%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83.5 (5.2)	83.6 (-7.8)	83.8 (-3.9)	85.4 (-1.9)	81.3 (-7.1)	81.4 (-2.6)	79.9 (-4.7)	80.5 (-3.9)	80.6 (-5.0)
농림수산물	91.5 (-0.3)	90.5 (-2.4)	88.5 (-1.8)	95.5 (3.5)	91.8 (-0.3)	98.7 (9.1)	101.7 (14.9)	102.7 (16.4)	102.9 (14.6)
농 산 물	145.0 (-1.5)	142.1 (-6.9)	140.8 (-7.2)	153.7 (4.0)	146.7 (7.4)	145.6 (2.5)	143.2 (1.7)	144.0 (2.9)	143.8 (0.8)
공 산 품	83.5 (-5.2)	83.5 (-7.9)	83.8 (-3.9)	85.3 (-1.9)	81.2 (-7.1)	81.3 (-2.6)	79.8 (-4.8)	80.4 (-4.1)	80.5 (-5.0)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76.8로 전분기 대비 1.3% 상승하였고 전년 동기에 비해 5.7% 하락하였음.
- 2016년 6월 수입물가지수는 78.0으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및 석탄 석유제품 등의 가격이 올라 전월대비 0.8% 상승(전년 동월대비로는 4.9%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10.5% 하락함.
 - 원재료의 경우,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4%, 0.3%, 0.1% 하락함.
- 2016년 6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4.8로 돼지고기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대비 1.8% 상승하였음.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80.4 (-15.3)	81.6 (-18.2)	81.4 (-15.2)	81.3 (-13.6)	77.2 (-14.1)	75.8 (-7.1)	76.8 (-5.7)	77.4 (-5.1)	78.0 (-4.9)
농림수산물	94.1 (-4.9)	96.9 (-2.0)	92.6 (-6.9)	95.2 (-1.9)	91.7 (-8.7)	93.2 (-3.8)	93.1 (0.5)	94.2 (3.1)	94.8 (1.8)
농 산 물	85.0 (-7.1)	87.4 (-7.4)	84 (-9.6)	86.3 (-1.7)	82.2 (-9.6)	82.5 (-5.6)	82.1 (-2.3)	82.8 (0.4)	83.5 (-1.9)
축 산 물	115.0 (-4.9)	120.7 (4.6)	111.9 (-5.7)	115 (-5.9)	112.3 (-11.7)	113.3 (-6.1)	113.3 (1.3)	114.7 (2.6)	115.8 (4.6)
공 산 품	83.8 (-5.8)	83.5 (-9.4)	83.3 (-6.0)	85.5 (-2.6)	82.9 (-5.4)	84.0 (0.6)	83.3 (0.0)	83.9 (0.8)	84.2 (0.1)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⁷⁾

- 2016년 5월중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대비 16.2%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5% 증가)함.
- 2016년 5월중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대비 6.7%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7%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 MMF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기타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대비 7.7%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7% 증가).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6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2016.7.13.)」와 「2016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2016.7.13.)」, 「2016년 2/4분기 외환시장 동향(2016.7.15.)」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대비)

	2015								2016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1	18.9	18.5	21.0	21.3	21.4	21.5	20.6	19.6	20.7	19.4	18.8	18.0	16.2
M22	9.3	9.0	9.3	9.2	9.4	8.8	7.7	7.5	8.1	8.3	7.8	7.0	6.7
Lf3	10.3	10.5	10.6	10.4	10.5	10.2	9.2	8.9	8.9	8.9	8.6	8.0	7.7
본원통화4	15.7	17.0	20.6	13.2	20.1	17.3	18.8	16.3	15.9	15.8	14.6	17.3	15.5

-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6년 6월 시장 금리는 단기와 장기 모두 하락함.
 - 국고채(3년)금리는 기준금리 인하(6월 9일, 1.5%→1.25%) 및 브렉시트 결정(6월 24일)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하락하였음.
 - 회사채금리의 경우 우량물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
 - 6월중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CD유통수익률(91일)은 2016년 6월 기준 1.43%로 전월 대비 0.15%p 하락함.

금리동향

단위: %

	2015					2016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1.74	1.65	1.63	1.75	1.72	1.63	1.47	1.50	1.47	1.46	1.33
회사채 ¹	1.49	1.48	1.48	1.49	1.48	1.49	1.49	1.49	1.49	1.49	1.28
CD유통수익률(91일)	1.64	1.60	1.58	1.59	1.67	1.67	1.64	1.63	1.61	1.58	1.43
콜금리 ²	1.98	1.95	1.96	2.12	2.14	2.09	1.95	1.98	1.94	1.91	1.79

-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1,163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38원 하락하였으며,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33원 상승한 1,076원임.
 - 2016년 2/4분기 원/유로 환율 및 원/위안 환율 모두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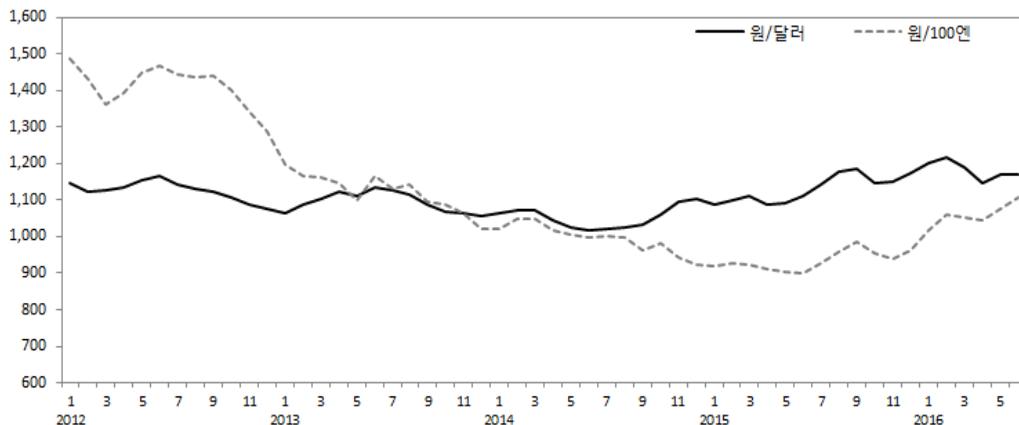
- 2016년 6월 원/달러 환율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며, 원/100엔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엔화 강세로 전월 대비 33원 상승함.
 - 6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71원으로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 등으로 월중 1,147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6월 24일 영국 EU탈퇴 결정으로 1,180원대까지 급등한 후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함.
 - 6월 원/100엔 평균 환율은 1,108원으로 브렉시트(Brexit) 등에 따른 위험회피성향 강화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가 크게 강세를 보임.

원화 환율 동향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원/달러	1,131	1,100	1,098	1,168	1,158	1,201	1,163	1,172	1,171
원/100엔	935	923	905	956	953	1,043	1,076	1,075	1,108
원/유로	1,255	1,239	1,214	1,299	1,268	1,325	1,313	1,324	1,315
원/위안	180	176	177	185	181	183	178	179	177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Ⅱ. 농촌경제 동향⁸⁾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촌 물가

1.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6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0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9%, 전분기에 비해 7.0%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채소가 전년 동기보다 하락한 반면, 과실과 축산물은 상승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0.3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8.7%, 2.4% 하락함.
 - 미곡은 일반미와 찰쌀이 모두 하락하여 전년 동기대비 9.7% 하락함.
 - 두류/잡곡은 김정콩, 콩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상승함.
 - 감자 가격 하락으로 서류는 전년 동기보다 14.7% 하락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6.3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전분기보다 13.4% 하락함.
 - 배추 가격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상승한 반면 다른 품목들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여 엽채류는 전년 동기보다 8.7%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16.8% 하락함.
 - 조미채류에서는 마늘이 상승했으나 다른 품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보다 1.1% 하락함.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상민 연구위원(smlee@krei.re.kr), 박지원 연구원(jione1105@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과채류는 대부분 품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8.6%, 29.5% 하락함.
- 과실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7.9로 전년 동기보다 0.8% 상승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 15.7% 하락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4.8로 전년 동기보다 7.7%, 전분기보다 6.0% 상승함.
 - 가축은 가금류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보다 18.4%, 전분기보다 7.8% 상승함.
- 기타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5.0으로 전년 동기보다 1.9%, 전분기보다 13.0%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

	가중치	2014	2015		201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1.3	113.8	125.3	116.1	123.7	115.0	-0.9	-7.0
곡물	280.1	115.7	109.6	111.7	109.9	102.8	100.3	-8.7	-2.4
-미곡	234.3	120.4	112.7	115.0	111.9	103.4	101.0	-9.7	-2.3
-맥류	5.5	135.8	144.0	138.7	143.3	140.8	146.3	2.1	3.9
-두류/잡곡	23.9	88.2	73.3	78.3	74.9	84.9	81.7	9.1	-3.8
-서류	16.4	82.5	106.9	103.7	120.5	107.7	102.8	-14.7	-4.5
청과물	406.5	116.2	121.3	152.7	129.3	149.8	128.2	-0.9	-14.4
-채소	268.9	96.4	103.2	133.4	108.6	122.7	106.3	-2.1	-13.4
-과실	137.6	154.8	156.6	190.5	169.6	202.7	170.9	0.8	-15.7
축산물	252.6	98.5	107.3	99.4	106.6	108.3	114.8	7.7	6.0
-가축	185.1	89.6	104.2	92.0	101.4	111.4	120.1	18.4	7.8
-유란	67.5	122.8	115.9	119.8	120.8	99.6	100.2	-17.1	0.6
기타농산물	60.8	111.7	110.9	112.7	96.8	109.2	95.0	-1.9	-13.0
-특용작물	42.4	123.2	120.2	119.0	100.9	114.2	98.2	-2.7	-14.0
-화훼	15.3	83.6	89.5	99.6	87.0	100.6	88.3	1.5	-12.2
-부산물	3.0	93.9	88.6	90.0	90.0	84.3	84.3	-6.3	0.0

자료: 통계청

1.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6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9.4로 전년 동기보다 0.3%, 전분기보다 0.8%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106.1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보다는 1.2% 상승함.
 - 가축은 전년 동기보다 27.0% 상승한 반면, 비료, 영농광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업용품 가격이 하락함.
- 농촌임료금지수는 140.2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3.5%, 2.5% 상승함.
 - 농업노동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3.5% 상승하였고, 농기계 임차료는 전년 동기보다 0.7%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0년=100)

	가중치	2014		2015		201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8.4	109.0	108.2	109.1	108.5	109.4	0.3	0.8
가계용품	576.0	106.7	108.1	107.6	108.1	108.7	109.0	0.8	0.3
농업용품	376.9	108.3	107.3	106.0	107.4	104.8	106.1	-1.2	1.2
-종자	29.3	146.2	139.3	139.2	139.2	133.8	133.8	-3.9	0.0
-비료	39.0	79.6	80.1	80.1	80.1	63.5	63.5	-20.7	0.0
-농약	29.9	117.6	124.2	124.2	124.2	123.3	123.3	-0.7	0.0
-농기구	64.0	116.9	119.5	119.5	119.5	119.5	119.5	0.0	0.0
-영농광열	26.7	120.0	85.3	84.5	87.8	67.0	69.1	-21.3	3.1
-가축	51.3	82.0	101.6	87.0	101.1	114.7	128.4	27.0	11.9
-사료	125.0	110.4	106.0	108.3	106.0	103.8	101.7	-4.1	-2.0
-영농자재	11.7	105.9	95.8	97.0	97.0	96.2	96.2	-0.8	0.0
농촌임료금	47.1	128.9	134.6	132.0	135.5	136.8	140.2	3.5	2.5
-농업노동임금	44.9	123.9	135.2	132.6	136.2	137.5	141.0	3.5	2.5
-농기계임차료	2.2	121.0	122.5	121.6	122.6	122.6	123.4	0.7	0.7

자료: 통계청

1.3. 농업경영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6년 2/4분기 농업 투입재가격지수는 107.4로 전년 동기보다 4.0%, 전분기보다 0.1% 하락함.
- 2016년 2/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107.1로 전년 동기보다 3.2% 상승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6.9% 하락함.
 - 전년 동기에 비해 농가판매가격과 농업투입재가격이 모두 하락했으나 농업투입재가격지수의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농업경영조건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전분기와 대비했을 때에도 농가판매가격과 농업투입재가격이 모두 하락했으나 농가판매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 농업경영조건은 전분기에 비해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농업경영조건지수

	2015		2016		등락률(%)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25.3	116.1	123.7	115.0	-0.9	-7.0
농업투입재가격(B)	111.9	111.8	107.5	107.4	-4.0	-0.1
농업경영조건(A/B×100)	112.0	103.8	115.1	107.1	3.2	-6.9

주: 농가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6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1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감소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36.7% 증가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28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각각 5.9%, 3.2%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한 80만 4천 명이었고, 여성은 7.2% 감소한 61만 5천 명임.

- 농가 취업자수는 170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2% 감소한 반면 전분기보다 22.3%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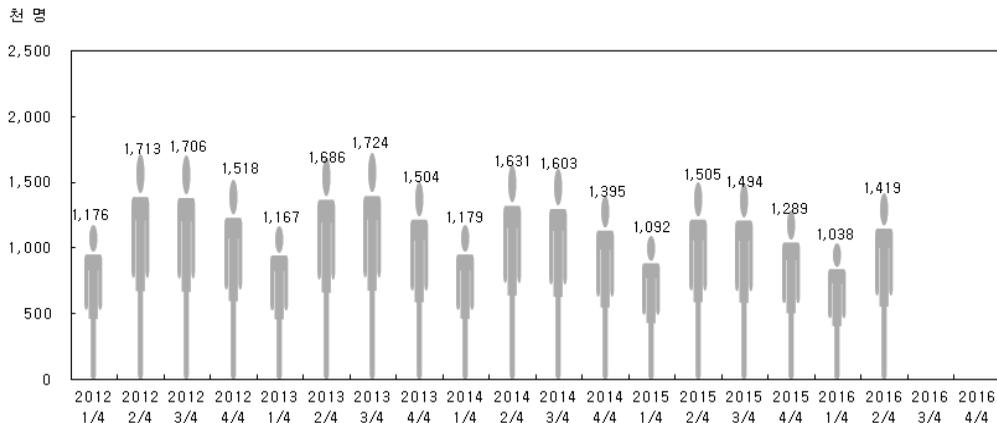
단위: 천명

		2015		2016		증감률(%)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5,267	26,098	25,554	26,387	1.1	3.3
	(계절조정)	25,903	25,760	26,162	26,081	1.2	-0.3
	농림어업	1,092	1,505	1,038	1,419	-5.7	36.7
	(계절조정)	1,391	1,362	1,324	1,282	-5.9	-3.2
	남성	685	842	647	804	-4.5	24.3
	여성	407	663	391	615	-7.2	57.3
	농가	1,607	1,901	1,397	1,708	-10.2	22.3
	농가남성	955	1,062	832	953	-10.3	14.5
농가여성	652	839	565	755	-10.0	33.6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2016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분기에 비해 늘어났으나, 2011년 2/4분기 173만 6천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3. 농축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물량은 101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4% 증가함.
 - 모든 부류에서 수출물량이 늘어나 임산물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7.9%, 농산물은 6.3%, 축산물은 0.5%의 증가율을 나타냄.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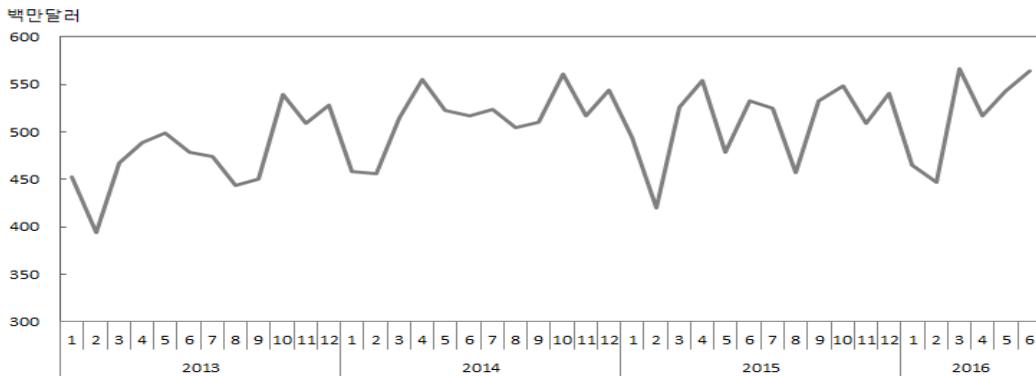
구 분	2015				201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791	1,437	953	1,561	860	1,478	1,015	1,624	6.4	4.0
농산물	629	1,244	727	1,329	659	1,297	773	1,401	6.3	5.4
-곡류	10	8	16	9	9	8	9	8	-44.9	-4.5
-과실류	31	55	28	42	35	67	32	57	14.5	35.8
-채소류	20	78	24	73	27	82	35	86	45.6	17.7
축산물	28	120	30	123	27	100	30	115	0.5	-6.2
-포유육류	2	13	1	6	1	8	1	5	-26.0	-19.0
-가금육류	6	11	8	12	7	10	8	10	9.2	-16.5
-낙농품	8	39	9	40	7	34	9	42	-0.9	3.8
임산물	134	73	196	109	174	81	212	108	7.9	-0.9
수산물	139	429	193	529	131	435	162	563	-16.2	6.6
전체	930	1,869	1,146	2,089	992	1,913	1,176	2,187	2.6	4.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2/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6억 2,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함.
 - 농산물이 전년 동기에 비해 5.4%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6.2%, 임산물은 0.9% 감소함.
 - 농산물에서는 옥수수의 수출액 감소로 곡류가 전년 동기보다 4.5% 감소한 반면, 과실류는 35.8%, 채소류는 17.7% 증가함.

- 축산물에서는 낙농품이 전년 동기보다 3.8% 증가하였으나 포유육류는 19.0%, 가금육류는 16.5% 감소함.
-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016년 6월 현재 5억 6,400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3.9% 증가하고,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5.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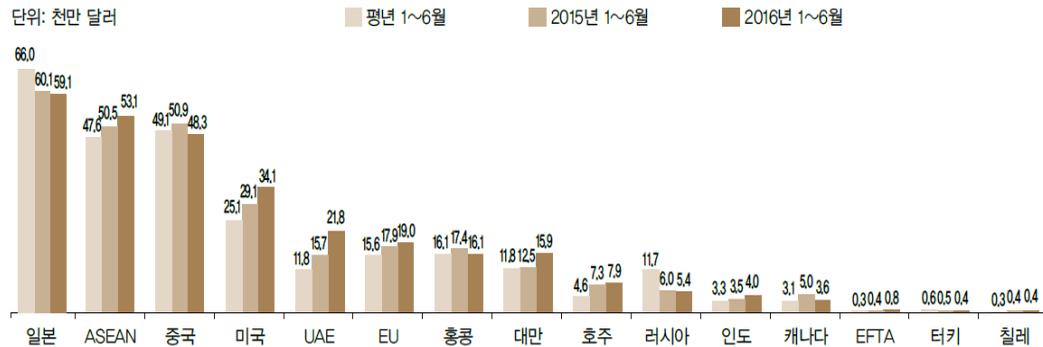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6년 6월까지 일본, ASEAN, 미국,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1% 증가하였고, 특히 UAE로의 누적 수출액(39.1%)이 크게 증가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2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6년 3/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90.2로 전분기에 비해 수출경기가 악화될 전망이다⁹⁾, 2015년 4/4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원재료 가격 상승과 원화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수출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3.2. 수입 동향

- 201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물량은 1,276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4%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모든 부류에서 수입량이 증가하여 농산물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3.6%, 임산물과 축산물은 각각 3.0%, 1.6%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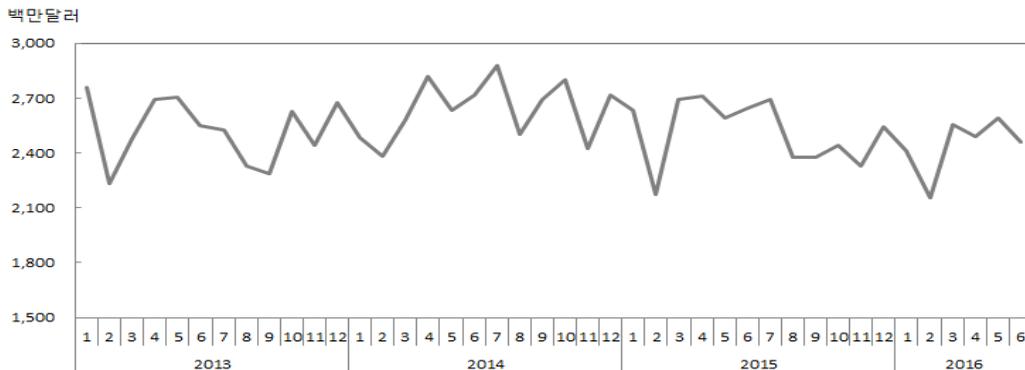
구 분	2015				201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567	7,504	12,347	7,947	12,097	7,125	12,763	7,543	3.4	-5.1
농 산 물	7,921	4,487	8,218	4,784	8,021	4,213	8,515	4,558	3.6	-4.7
-곡류	3,663	983	3,721	981	3,488	775	3,838	858	3.1	-12.5
-과실류	261	431	338	654	301	444	353	601	4.4	-8.1
-채소류	238	202	237	214	276	217	250	224	5.6	4.9
축 산 물	358	1,456	375	1,423	379	1,397	381	1,396	1.6	-1.9
-포유육류	206	935	206	850	233	935	221	883	7.2	4.0
-가금육류	27	69	29	80	27	62	35	73	19.5	-8.3
-낙농품	60	223	58	206	60	181	62	188	6.9	-8.8
임 산 물	3,289	1,561	3,753	1,741	3,698	1,515	3,866	1,590	3.0	-8.7
수 산 물	1,224	1,143	1,399	1,111	1,182	1,148	1,283	1,132	-8.2	1.9
전 체	12,791	8,647	13,746	9,059	13,280	8,273	14,046	8,675	2.2	-4.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9) 한국무역협회, '2016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6.0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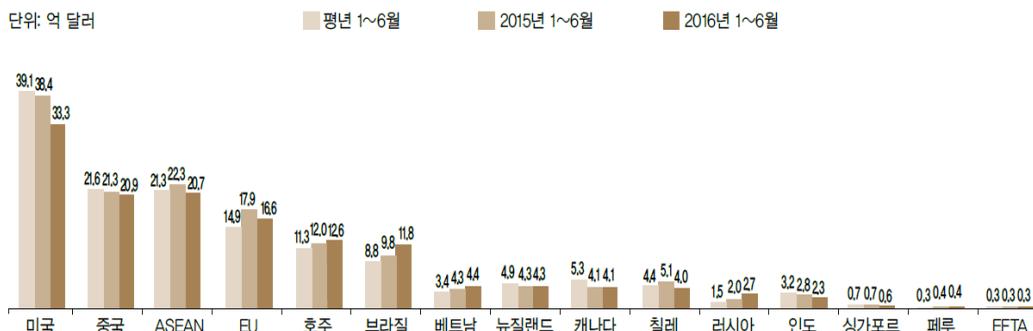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75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5.1% 감소함.
 - 모든 부류에서 수입액이 감소하여 임산물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8.7%, 농산물 4.7%, 축산물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가운데 채소류의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곡류가(-12.5%)가 크게 감소했고, 축산물 중에서는 가금육류와 낙농품 등에서 수입액 감소가 나타남.
- 2016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4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7.0% 감소하고, 전월에 비해서도 5.1%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2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6년 6월까지 미국, 중국, ASEAN, EU 등으로부터의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산 수입액(-13.1%)이 크게 감소하였음.
 - 옥수수(미국, 우크라이나산), 돼지고기(미국, EU, 캐나다산), 포도(칠레, 페루산) 등의 수입 감소로 6월까지 누적 수입액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3. 순수입 동향

- 201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물량은 1,174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예 비해 3.1% 증가함.
 - 농산물의 경우 순수입물량은 774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한 35만 1천 톤임.
- 201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5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3% 감소함.
 - 모든 부류에서 순수입액이 감소하여 농산물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8.6%, 축산물은 1.5%, 임산물은 9.2%의 감소율을 나타냄.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5. 2/4분기		2016.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394	6,387	11,748	5,920	3.1	-7.3
농 산 물	7,491	3,455	7,742	3,157	3.3	-8.6
축 산 물	345	1,300	351	1,281	1.7	-1.5
임 산 물	3,557	1,632	3,655	1,482	2.7	-9.2
수 산 물	1,206	583	1,122	569	-7.0	-2.4
전 체	12,599	6,969	12,870	6,488	2.1	-6.9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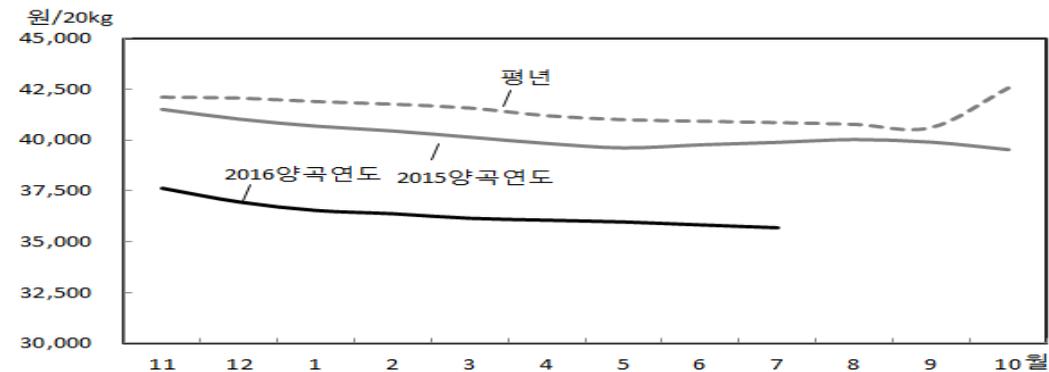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⁰⁾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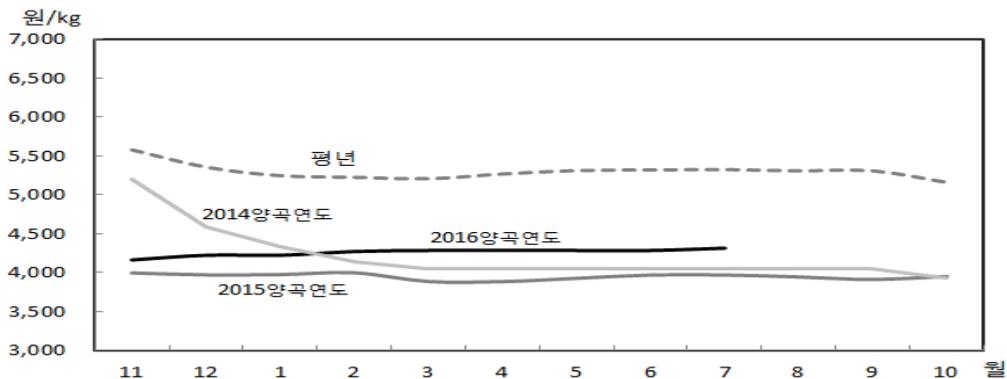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 산지 쌀 가격은 3월 말 추가 시장격리(14만 3천 톤)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4월 말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대규모 할인행사로 약보합세로 전환됨.
 - 6월 중순, 원료곡이 부족한 일부 산지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2015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4천 톤(전체물량의 약 5% 수준)을 인수하였는데 1등급 인수 가격은 4만 8천원 수준으로 확정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연구위원(taehun@krei.re.kr), 김종진 연구위원(jkim@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김지연(jykim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손미연(sonmy@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임권택(lkt2000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추가 시장격리 이후(4~6월) 소비지 쌀 판매량은 격리 이전(1~3월)보다 8.1% 증가한 반면, 판매 가격은 동기간 4.0% 하락함에 따라 소비지 저가출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6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20kg 기준 3만 5,829원으로 전년 대비 9.9%, 수확기 대비 5.8% 하락함.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추가 시장격리 이후(4~6월) 산지유통업체의 월 평균 쌀 판매량은 격리 이전(1~3월)보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확기 벼 매입이 전년보다 늘어 재고가 전년보다 많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산지 쌀 가격은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7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3만 5,690원/20kg으로 전년 대비 10.5%, 전월 대비 0.4% 하락함.
 - 산지유통업체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저가출하가 확대될 경우, 산지 쌀 가격은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1.2. 콩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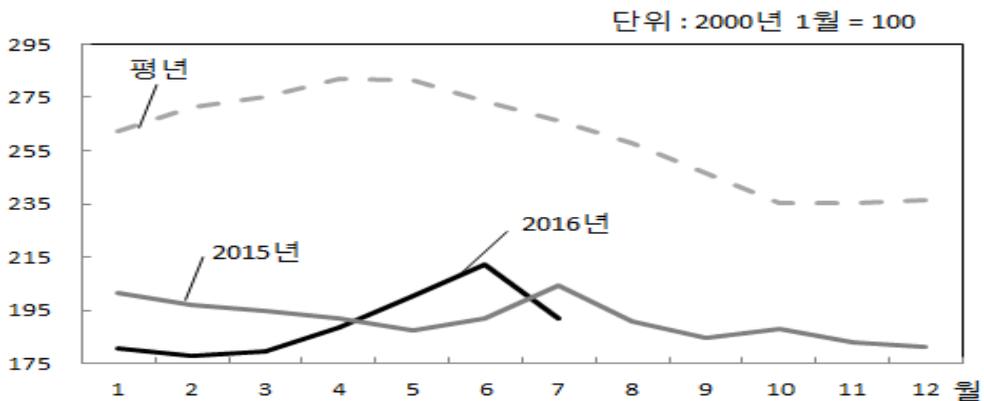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2/4분기 동향
 - 2015년산 콩 생산량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부가 2015년산 수매물량을 늘리면서 수확기 국내산 콩의 시장 공급량이 감소하였음.
 - 그러나 5월부터 2013년산과 2014년산 정부수매물량이 시장에 방출됨에 따라 수확기 이후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6월 국산 콩의 평균 도매가격은 4,286원/kg으로 전년 동기대비 7.9% 상승하였으며, 평년 동기 대비 19.5% 낮은 수준임.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 7월 국산 콩 평균 도매가격은 4,316원/kg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년 동기보다 19.0% 하락함.
 - 2015년산에 대한 일부 수요가 있으나 시장에서 국산 콩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수매물량이 꾸준히 시장에 방출되고 있어 단경기 콩 도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3.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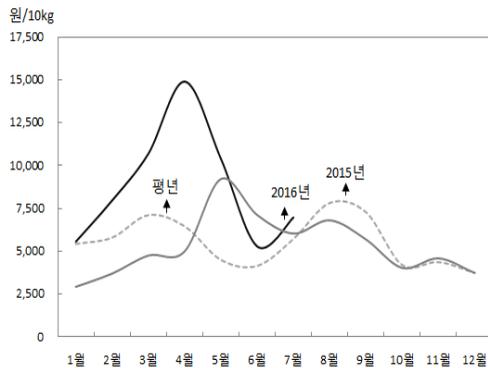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콩, 옥수수 주산지인 남미지역 기상악화와 금융자본 유입 등으로 전분기 대비 12.1% 상승한 194.1임.
 - 주요 곡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상황과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산지(브라질, 아르헨티나) 기상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전망, 금융자본 유입 등으로 인해 선물가격지수는 상승함.
 - 특히, 4월 이후 아르헨티나 북부지역 폭우로 인한 콩 생산량 감소가 선물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 7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미국 곡물 주산지의 기상 여건 개선 및 미국 농무부의 주요 곡물 재고량, 재배면적 증가 발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전월 대비 9.1% 하락한 193.0임.
 - 2016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세계 경제 저성장, 달러화 강세, 미국 주산지 기상 개선 등으로 전분기 대비 3.4% 하락한 194.1로 전망됨.
 - 다만, 브라질 가뭄으로 인한 2015/16년산 옥수수 생산량 감소, 라니냐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여부, 생육기인 곡물 주산지 기상여건에 따라 선물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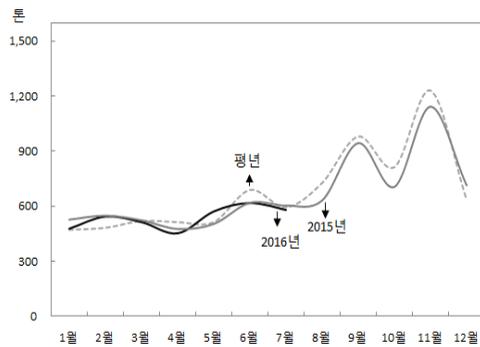
2. 엽근채소¹¹⁾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2015년산 월동배추 저장 출하량이 크게 줄어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43%, 102% 높았음.
- 2/4분기 월별 가격은 4월 14,920원/10kg, 5월 10,350원/10kg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노지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6월에는 5,260원/10kg으로 하락하였음.

* (금년) 10,180원/10kg, (전년) 7,100원/10kg, (평년) 5,050원/10kg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9~12% 감소한 15만 6천~16만 3천 톤으로 전망
 -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작년보다 4~6% 감소한 4,436~4,539ha
 - * 고랭지배추 단수: 7월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작년보다 5~7% 감소한 3,525~3,594kg/10a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임호빈(hyobin@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이동규(caf022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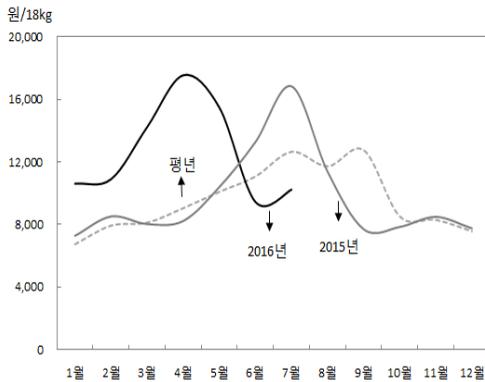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대량수요처의 배추 저장량이 많아 8~9월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을 전망

* 3/4분기 배추 출하량은 고랭지배추 작황 부진으로 작년보다 10% 내외 감소 전망

- 2016년 가을배추 재배의향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6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작년(12,724ha)과 평년(14,579ha)보다 각각 4%, 16% 감소한 12,254ha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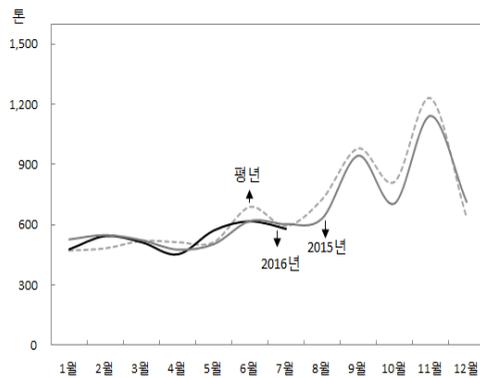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무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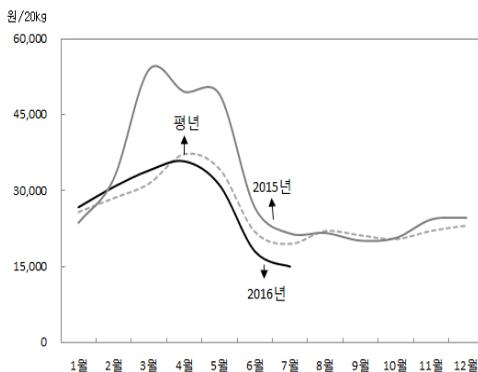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33%, 40% 높은 수준이었음.
 - 월동무 생육기 한파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4~5월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크게 높았음. 하지만 노지(터널)봄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6월은 출하량 증가로 가격 하락함.

- * (4월) 17,585원/18kg, (5월) 15,308원/18kg, (6월) 9,477원/18kg
- * (금년) 14,123원/18kg, (전년) 10,633원/18kg, (평년) 10,067원/1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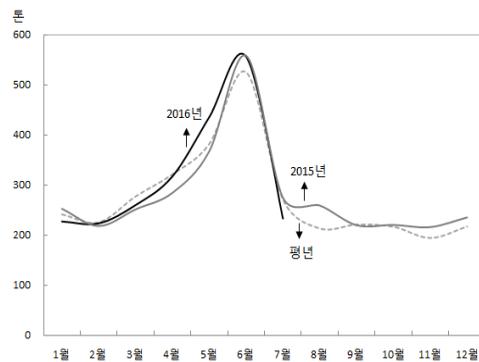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금년 고랭지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6~8% 감소할 전망
 - *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1,732ha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 고랭지무 생산량은 추정단수를 적용할 경우, 약 5만~5만 1천 톤으로 작년보다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무 출하량은 고랭지무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노지봄무 출하량이 증가해 작년보다 2%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
 - 3/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 및 평년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
 - 최근 3년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인해 2016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이 2%, 충청이 7%, 호남은 5%, 영남은 4% 감소하고 대체 작물로는 콩, 들깨, 대파 등으로 조사됨.

2.3. 감자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감자 반입량 동향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감자(수미)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28,290원/20kg으로 작년과 평년 대비 각각 32%, 9% 낮음.
 - * (금년) 28,290원/20kg, (전년) 41,768/20kg, (평년) 31,150/20kg
 - * (4월) 35,930원/20kg, (5월) 30,910/20kg, (6월) 18,050/20kg (7월) 15,060/20kg
 - 2/4분기 가격은 재배면적의 증가로 노지봄감자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작년과 평년보다 하락함.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입고 시기인 6월 하순~7월 중순 감자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봄감자 저장량은 작년 대비 13% 내외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3만 8천~14만 1천 톤으로 작년보다 5~7%, 평년보다 20~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표본농가 조사결과 작년 대비 10% 증가한 3,729ha로 조사되었으며, 재배면적모형 추정결과 작년 대비 8% 증가한 3,659ha로 나타남.
 - 저장봄감자 저장량이 증가하였고,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4분기 감자(수미) 출하량은 작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가을감자 생산전망
 - 금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출하기(작년 12~4월)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8% 증가하나, 평년보다 21% 감소한 2,458ha일 것으로 조사됨.
 - 재배면적모형 추정 결과 작년 대비 10% 증가하나, 평년 대비 19% 감소한 2,522ha로 나타남.

가을감자 재배면적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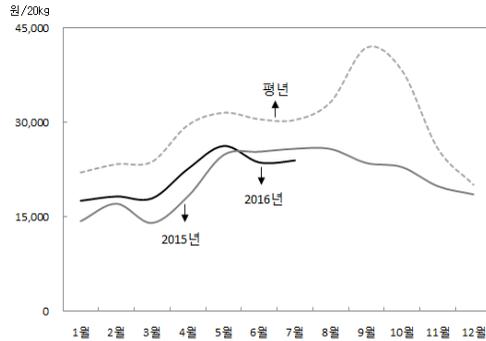
단위: ha, %

구분	2016년	2015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표본조사	2,458	2,268	3,105	7.5	-20.8
모형분석	2,522			10.3	-18.8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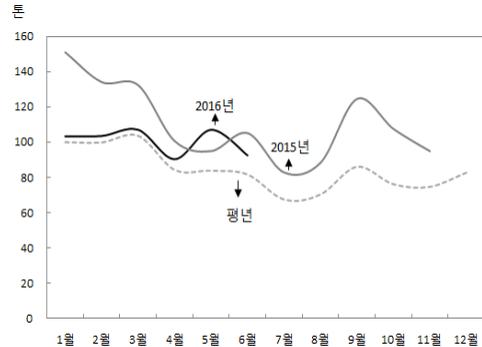
2.4.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당근 반입량 동향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6% 증가하고, 평년보다 20% 하락한 수준이었음.

* (금년) 22,825원/20kg, (전년) 29,401원/20kg, (평년) 30,558원/20kg

* 봄당근 가격 증가 이유: 겨울당근 생산량 감소로 노지 및 저장 출하량이 적었으며, 품질이 우수한 시설봄당근이 출하되었기 때문.

- 2/4분기 당근 20kg당 월별평균 가격은 4월 22,889원, 5월 26,138원, 6월 23,586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월의 경우 시설봄당근 출하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음.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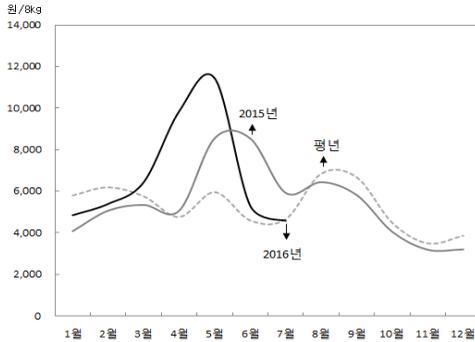
- 생육기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봄당근 저장량이 작년보다 10% 이상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됨.

- 2016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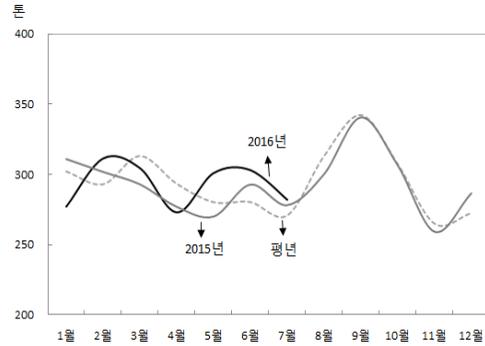
- 파종기 가격 약세로 인해 2016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7% 감소할 전망

2.5.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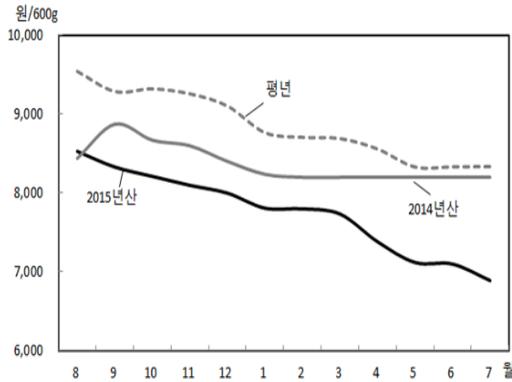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봄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0%, 73% 높음.
 - * 봄양배추 가격 상승 이유: 겨울양배추 생산량 감소에 따른 조기 출하로 출하공백 발생
 - 2/4분기 8kg당 월별 가격은 4월 5,066원, 5월 8,553원, 6월 8,543원으로 나타났음.
 - * (금년) 7,387원/8kg, (전년) 3,033원/8kg, (평년) 5,107원/8kg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고랭지양배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1%, 8% 내외로 증가할 전망
 - *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은 1,772ha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6%, 1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3/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
- 2016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농가들이 마늘, 생강 등으로 작목 전환을 고려하고 있어 2016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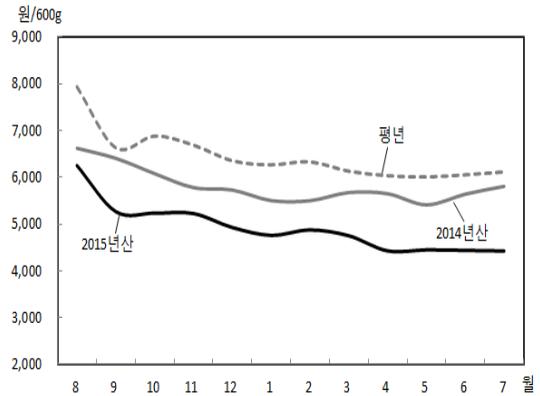
3. 양념채소¹²⁾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0년 8월~2015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6년 2/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2/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2%, 14% 낮은 7,200원이며,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3% 낮은 4,440원이었음.
 - * 도매가격: (금년) 7,200원/600g, (전년) 8,200원/600g, (평년) 8,410원/600g
 - * 산지가격: (금년) 4,440원/600g, (전년) 5,570원/600g, (평년) 6,030원/600g
 - 이는 이월 재고가 많고 2015년산 생산량도 증가하여 공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1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y@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6년산 건고추 생산 동향

- 2016년산 재배면적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2015년산보다 4~7% 감소한 3만 2천~3만 3천 ha로 추정

- 2016년산 고추 생육은 전반적으로 양호

* 2016년산 고추 생육상황 조사결과(7. 20), 2015년산 대비 '좋음' 25%, '비슷' 57%, '나쁨' 18%

* 7월 상순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저지대에서 습해, 역병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고추 작황은 양호한 상태임.

2016년산 고추 전년 대비 생육 상황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경기·강원	37.5	51.8	10.7
충 청	19.9	60.0	20.1
호 남	22.9	52.7	24.4
영 남	24.0	63.7	12.3
전 국	24.8	57.3	17.9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6년산 건고추 단위당 수확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결과(7. 20), 2016년산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과 비슷한 284kg으로 전망

* 농업관측센터 단수예측모형 및 기상패턴을 분석한 결과 10a당 수확량은 273~283kg으로 추정

- 2016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2015년산과 평년보다 감소한 8만 7천~9만 4천 톤으로 전망

2016년산 건고추 추정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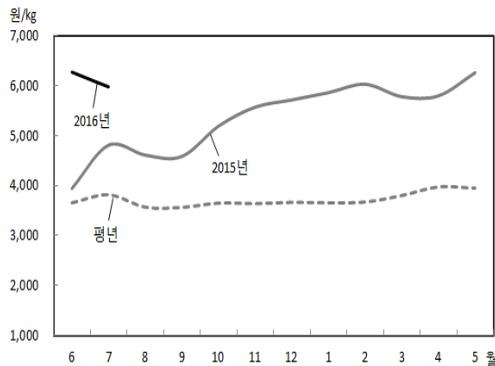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	31,937~33,057	273~284	87.3~93.8
2015	34,514	283	97.7
평년	41,351	242	99.9
전년 대비	-7.4~-4.2	-3.4~0.2	-10.6~-4.0
평년 대비	-22.8~-20.1	13.1~17.4	-12.6~-6.2

주: 2016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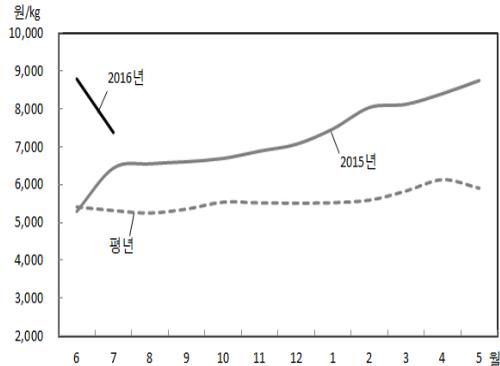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7월 평균 도매가격은 6월 대비 3% 하락한 6,890 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도 낮았음. 화건 상품 7월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24% 낮으나, 6월과 비슷한 4,420원임.
 - * 이월 재고량이 많아 햇고추 출하시기가 다가오면서 출하량을 늘렸기 때문임.
 - 2016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감소하나, 이월 재고량이 많아 공급은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건고추 3/4분기 도매가격은 전년 (8,350원/600g)과 평년 동기(9,680원)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3.2. 마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1년 6월~2016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6년 2/4분기 동향
 - 난지형 마늘 2/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15년산 마늘 재고량과 2016년산 난지형 남도종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 평년 동기보다 각각 67%, 58% 높았음.
 - 간마늘 도매가격은 통(피)마늘 가격이 높아 전년 동기보다 63%, 평년 동기보다 49% 높았음.

- * 난지형 도매가격: (금년) 6,110원/kg, (전년) 3,658원/kg, (평년) 3,860원/kg
- * 칸미늘 도매가격: (금년) 8,649원/kg, (전년) 5,307원/kg, (평년) 5,809원/kg

● 2016년산 마늘 생산 동향

- 2016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4%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6% 감소한 27만 6천 톤임(7. 22, 통계청).

* 2016년산 마늘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 평년보다 각각 3%, 4% 증가한 1,327kg임.

2016년산 마늘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	20,759	1,327	275,549
2015	20,638	1,290	266,272
평년	25,757	1,278	329,292
전년 대비	0.6	2.9	3.5
평년 대비	-19.4	3.8	-16.3

자료: 통계청.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저장 동향

- 표본 조사치와 모형 분석치를 감안한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9만 2천~9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 전망

* 농업관측센터 저장업체 표본 조사 결과(7. 20),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대서종 위주로 전년 대비 8% 증가

* 마늘 입고량 모형 분석 결과,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전년 대비 8~9% 증가

- 남도종 가격 상승으로 2016년산 난지형 마늘 평균 입고가격은 4,300원/kg 내외이며, 전년 대비 16% 높은 수준

* 대서종 입고가격은 3,900원/kg으로 전년 대비 9% 하락, 남도종은 4,950원/kg으로 전년 대비 43% 상승

2015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2016	2015	전년 대비
조사치	92,260	85,576	7.8
추정치	92,151~93,505	85,576	7.7~9.3

자료: 농업관측센터,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및 추정치.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난지형 마늘과 깬마늘 도매가격은 이월재고량과 햇마늘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각각 57%, 39% 높았음.
 - 8~9월 마늘 가격은 난지형 대서종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7월보다 낮으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평년 대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 2016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7~1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7. 20),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2016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7% 증가 전망
 -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2%, 난지형은 9% 증가(난지형 중 대서종은 8%, 남도종은 9%) 전망
 - * 재배면적반응함수 추정 결과,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10% 증가 전망
 - 조사치와 모형 추정치를 감안한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2,238~22,822ha로 전년보다 7~10% 증가하나, 평년보다 8~10% 감소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11.1	-5.2	13.2	5.3	-	1.7
난지	29.8	9.0	11.2	6.1	7.5	8.5
전체	11.3	1.2	11.3	5.9	7.5	7.1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2017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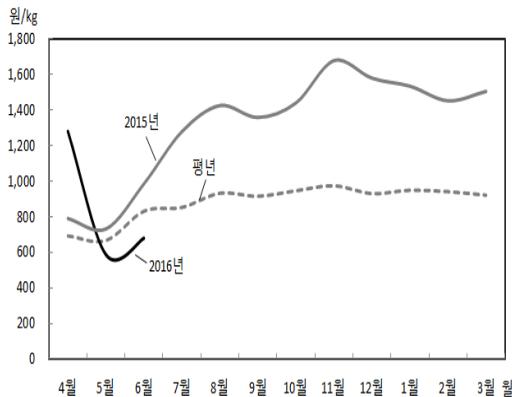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재배면적(ha)
2017	22,238~22,822
2016	20,759
평년	24,831
전년 대비	7.1~9.9
평년 대비	-10.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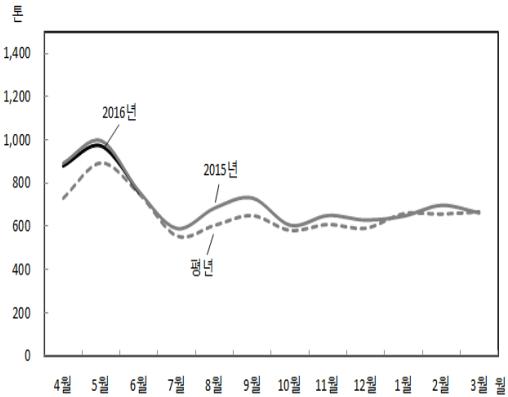
주: 2017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1년 4월~2016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2/4분기 동향
 - 2015년산 이월 재고량 부족과 2016년산 조생종 햇양파 출하지연으로 4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62% 높은 1,280원이었음.
 - 반면, 5~6월 가격은 2016년산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면서 전년보다 26% 낮은 630원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848원/kg, (전년) 835원/kg, (평년) 730원/kg

- 2016년산 양파 생산 동향
 - 2016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9%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4% 감소한 129만 8,749톤임(7. 22, 통계청).
 - * 2016년산 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8%, 2% 증가한 6,528kg임.

2016년산 양파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 톤, %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	19,896	6,528	1,298.7
2015	18,015	6,072	1,093.9
평년	21,294	6,378	1,358.0
전년 대비	10.4	7.5	18.7
평년 대비	-6.6	2.4	-4.4

자료: 통계청.

- 2016년산 양파 저장동향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3~15% 많으나, 평년보다는 3~5% 적은 62만 6천~63만 8천 톤으로 추정됨.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저장업체 평균 입고가격은 kg당 500~600원이며, 입고가격을 고려한 저장업체의 손익분기가격은 800~900원으로 추정됨.

2016년산 양파 추정 입고량

단위: 천 톤, %

구분	2016년산	2015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표본 조사치	626	556	655	12.5	-4.5
모형 조사치	629			13.0	-4.0
	638			14.7	-2.7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3%, 15% 하락하였으나, 전월보다는 7% 상승한 720원/kg임.
 - * 이는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았으나, 농가 저장 양파 출하가 마무리되면서 전월보다는 상승하였음.

- 8월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저장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으며, 7월보다는 소폭 상승한 700~900원/kg으로 전망됨.
 - * 8월부터 저장양파가 본격 출하되나 저장업체의 손익분기가격인 800~900원/kg 내외에서 출하 조절이 이루어져 8월 가격은 7월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한편, 9월 이후 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으며, 보합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 2016년산 양파 가격 상승으로 2017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8% 감소할 전망
 -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7. 20), 2017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8% 감소 전망
 - * 품종별로 조생종이 전년 대비 12%, 중만생종은 7% 감소
 - * 재배면적반응함수 추정 결과, 2017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4% 감소 전망
 - 조사치와 모형 추정치를 감안한 2017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18,297~19,089ha로 전년보다 4~8%, 평년보다 5~9% 감소

2017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조생종	-	-	-4.3	-	-	-24.4	-12.4
중만생종	2.4	-3.7	-6.9	-7.5	-10.1	2.0	-7.3
전체	2.4	-3.7	-6.4	-7.5	-10.1	-17.3	-8.0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2017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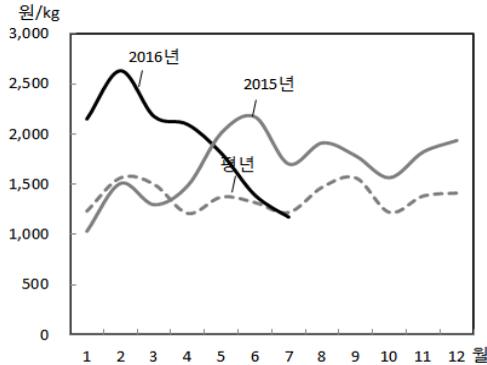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ha)
2017	18,297~19,089
2016	19,896
평년	20,157
전년 대비	-8.0~-4.1
평년 대비	-9.2~-5.3

주: 2017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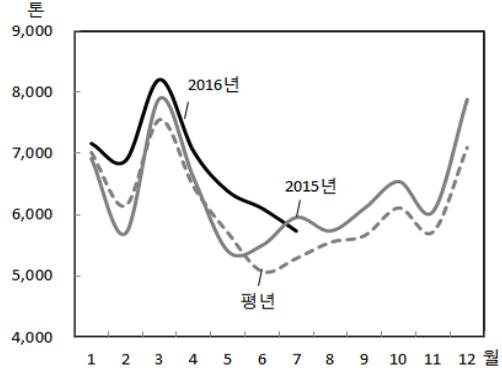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1년 1월~2015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2/4분기 동향
 - 대파 2/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763원(중품 1,218원)으로 전년대비 7% 낮으나, 평년 대비 36% 높았음.
 - 겨울대파 생산량 감소로 4월 까지 가격은 전년보다 높았으나, 5월~6월 가격은 생산량이 증가한 시설봄대파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하락함.
 - * (금년) 1,763원/kg, (전년) 1,890원/kg, (평년) 1,300원/kg
 - * (4월) 2,094원/kg, (5월) 1,807원/kg, (6월) 1,389원/kg, (7월) 1,173원/kg
 - 겨울(월동)대파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작황도 부진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출하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전년보다 빠른 5월 중순 대부분 종료되었음.
 - 시설봄대파 출하는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작황이 양호하여 가격은 점차 하락세를 보임.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상품 도매가격은 1,173원/kg으로 전년과 전월 대비 각각 31%, 16% 낮았음.

- 여름·고랭지·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15%, 5%,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배면적반응함수 분석 결과 전년 대비 각각 12%, 2%,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재배면적 증가로 여름, 고랭지대파가 출하되는 8~11월, 겨울대파가 출하되는 12월~내년 5월까지 장기적인 가격 약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대파 주요작형(여름, 고랭지, 겨울)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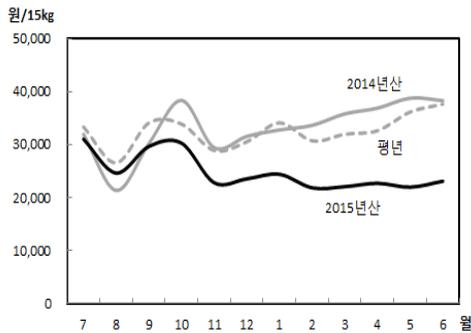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5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경기 (여름)	표본조사	1,485	1,297	1,698	14.5	-12.6
	모형분석	1,454			12.1	-14.4
강원 (고랭지)	표본조사	1,040	988	908	5.2	14.6
	모형분석	1,006			1.8	10.8
전남 (겨울)	표본조사	3,499	3,277	3,421	6.8	2.3
	모형분석	3,528			7.7	3.1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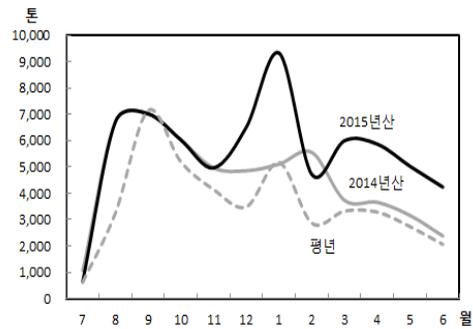
4. 과일¹³⁾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0~1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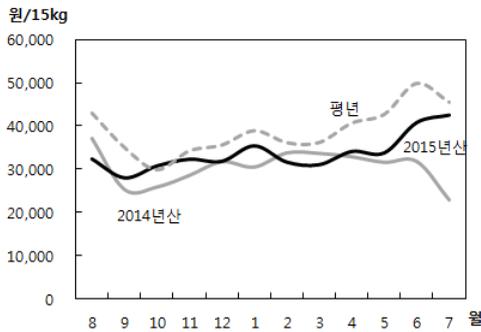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저장사과인 후지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2만 3천원(상품 10kg 상자)으로 전년보다 41% 낮았음. 이는 2015년산 사과 저장량이 여전히 많아 반입량이 전년보다 65%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햇사과인 쓰가루 도매가격은 저장사과 가격의 약세 영향으로 전년보다 24% 낮은 2만 4천원(상품 10kg 상자)이었음.
 - 8월 햇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1%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쓰가루 출하량이 전년보다 다소 적겠지만, 추석이 일러 홍로 출하가 당겨짐에 따라 전체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성명환 연구위원(mhsung@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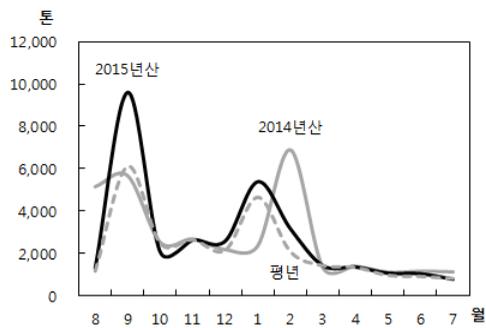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9.1.~9.14.) 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2% 적겠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4만 9천 톤으로 전망됨.
- 2016년 생산량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로 전년보다 3% 적겠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56만 8천 톤으로 전망됨. 추석에 출하될 홍로 생산량은 비대가 매우 원활하여 전년보다 1%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생종인 후지는 4%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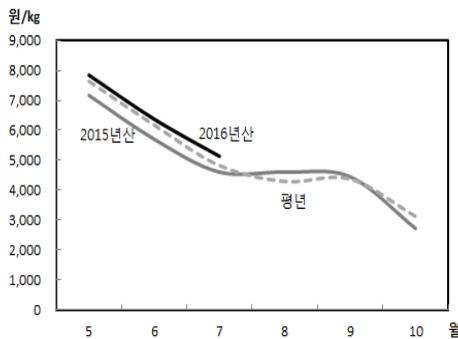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저장배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3만 6천원(상품 15kg 상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높았음. 이는 2015년산 배 저장량 감소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5% 적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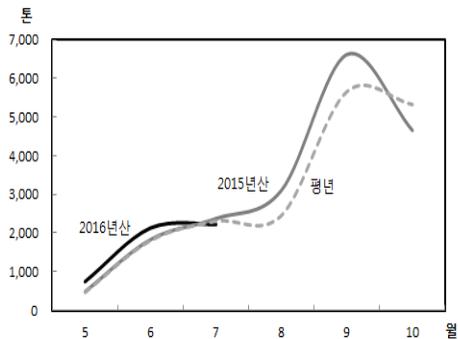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신고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적어 전년보다 85% 높은 4만 3천원(상품 15kg 상자)이었음. 바람들이과, 무름과가 많아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전월보다 커졌음.
 - 8월 햇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8%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저장배 가격강세의 영향으로 햇배 원황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8%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28만 3천 톤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매우 양호하여 저온피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단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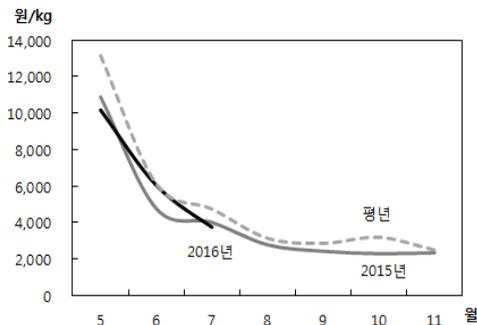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와 품질향상으로 전년보다 12% 높은 6,750원/kg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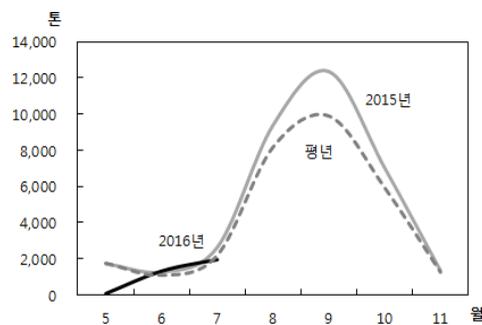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8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른 추석으로 전년보다 출하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9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 2016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58만 3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1% 감소했으나, 제주시의 착과수가 크게 증가한데다 주산지인 서귀포시 역시 착과수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임.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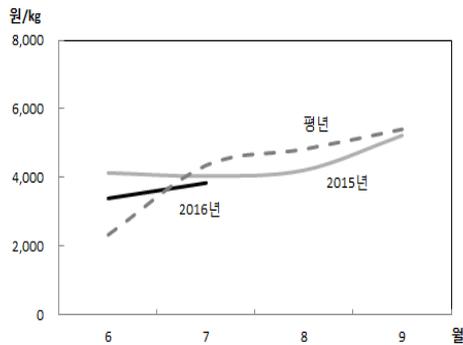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1~1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0월 캠벌얼리, 11월 MBA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2/4분기 동향
 - 6월 거봉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1만 5천원(상품 2kg 상자)으로 전년보다 10% 낮았고, 델라웨어는 1만 3천원으로 전년과 비슷하였음. 포도 출하량은 전년보다 적었으나, 복숭아·자두 등 여름과일 출하량이 많아 포도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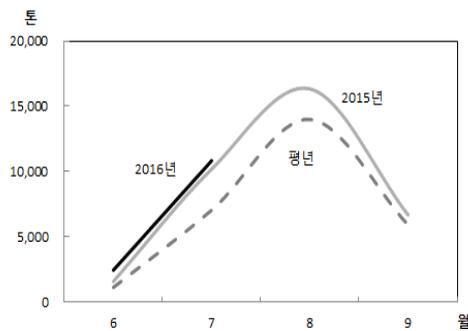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캠벨얼리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체과일 출하가 많아 전년보다 4% 낮은 7,500원(상품 2kg 상자)이었음.
 - 8~9월 포도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각각 6%, 4% 적을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생산량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생육이 양호하지만, FTA폐업지원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보다 6% 감소한 24만 4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 생육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포도 품질은 양호하고, 수확시기도 전년보다 5~7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4.5.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1~1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장호원황도(엘버트)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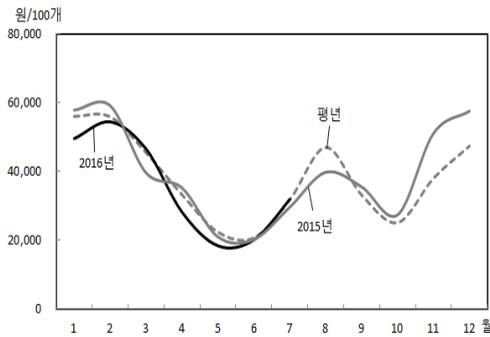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 6월 천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1만 7천원(상품 5kg 상자)으로 전년보다 18% 하락함. 이는 천도계 생산량 증가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31% 많았기 때문임.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도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아 전년보다 5% 낮은 1만 7천원(상품 4.5kg 상자)이었음.
 - 8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15%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 증가로 중생종 생산량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또한, 9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10%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7% 많은 27만 9천 톤으로 전망됨.
 - 품종별 생산량은 기상이 양호하여 천도계와 유모계 모두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천도계는 전년보다 20% 많은 6만 2천 톤, 유모계는 17% 많은 21만 7천 톤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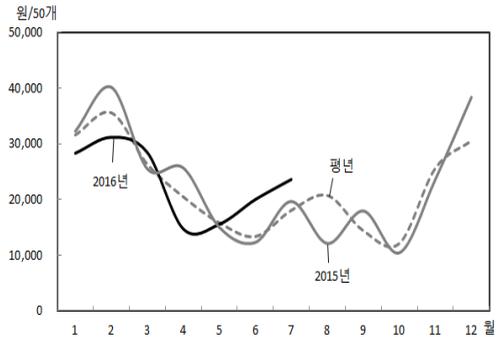
5. 과채¹⁴⁾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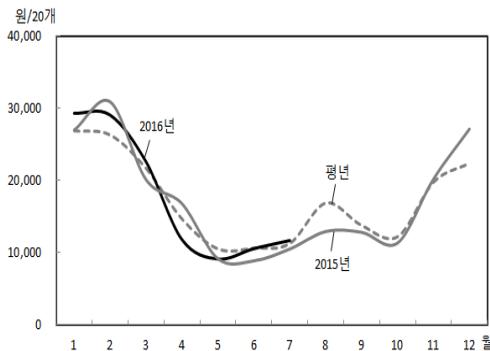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4월 2만 8,200원, 5월 1만 8,400원, 6월에는 2만 2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2만 2,300원으로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13%씩 낮았음.
 - 백다다기오이 2/4분기 반입량의 경우 5월 내내 계속된 강우로 6월 반입량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충청지역 재배면적 확대로 4~5월 반입량이 늘어 작년 동기보다 4% 많았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4월에는 1만 4,700원, 5월 1만 5,500원, 6월은 2만원이었음. 4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크게 높았던 전년과 달리 금년 4월 기상 호조로 반입량이 일시적으로 늘면서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 낮은 1만 6,700원이었음.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성명환 연구위원(mhsung@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이병훈(postino@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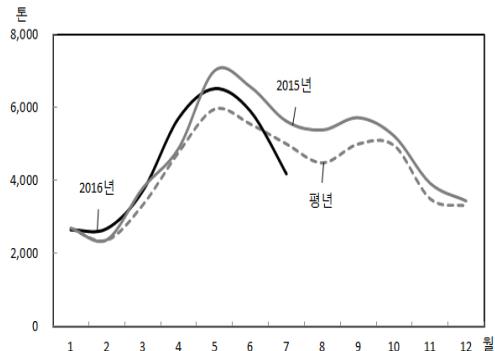
- 취청오이 2/4분기 반입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4월 기상여건 양호로 감소폭이 완화되어 전년 동기보다 1% 적었음.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하순 이후 장마가 본격화되었던 예년과 달리 상순부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반입량이 줄어 전년 동기보다 7% 높은 3만 1,900원(상품 100개)이었음.
 -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7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출하가 일부 늦어졌으나 이후 기상이 회복되고, 확대된 재배면적에서 출하가 본격화되어 기상이변이 없는 한 8~9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함께 상·중순 집중호우 피해로 반입량 감소가 심화되면서 전년 동기보다 20% 높은 2만 3,600원(상품 50개)이었음.
 - 재배면적이 감소한 강원지역에서 출하가 이어지고 충청지역에서는 작목 전환이 많아 취청오이 8~9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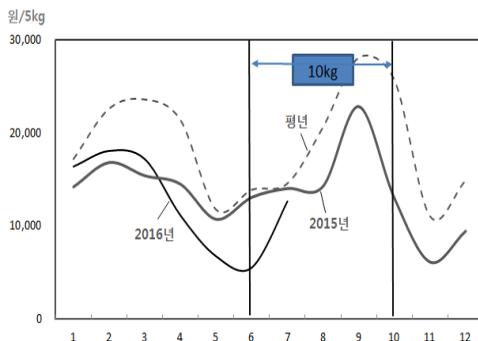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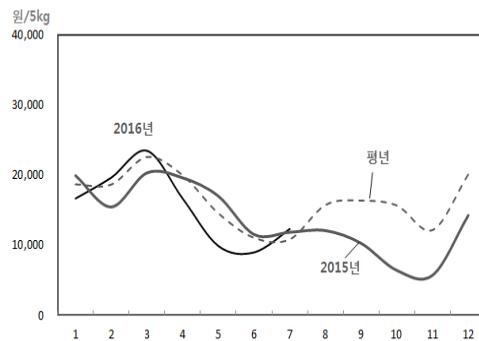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4월 1만 1,800원, 5월 9,100원, 6월에는 1만 600원이었음. 이른 고온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0%, 12% 낮은 1만 500원이었음.
 - 주산지인 영남지역에서 시설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이른 고온에 따른 품질 저하, 가격 약세 등으로 출하를 조기 종료한 농가가 많아 2/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 적었음.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주산지의 집중호우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1%, 4% 높은 상품 20개에 1만 1,700원이었음.
 - 애호박 8~9월 출하량은 출하비중이 확대되는 강원지역에서 면적 변동이 크지 않고, 충청지역에서도 재배규모가 유지되어 기상이변이 없는 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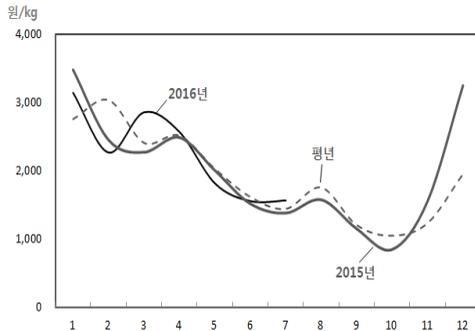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2/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4월 1만 1,100원, 5월 6,800원, 6월에는 5,500원이었음. 따라서 2/4분기 평균가격은 7,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 낮았음.
 - 일반토마토 2/4분기 반입량은 주산지에서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16% 많았음.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4월 1만 6,700원, 5월 9,900원, 6월에는 9천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1만 1,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낮았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3kg 상자에 4월에는 1만 3,900원, 5월 8,800원, 6월은 7,1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9,9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낮았음.
 - 방울토마토 2/4분기 전체 반입량은 주산지의 기상여건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1%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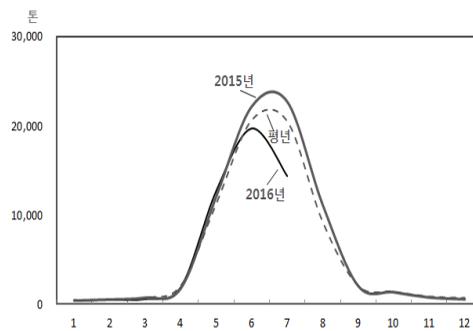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10%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2,700원이었음.
 - 8~9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7월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주산지의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전년보다 4%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2,300원이었음.
 - 7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의 경우 재배면적은 늘었으나 충청지역의 집중 호우로 출하량이 줄어 전년보다 2% 높은 상품 3kg 상자에 8,700원이었음.
 - 최근 지속된 가격 약세로 재배를 조기에 종료하는 농가가 늘어 8~9월 전체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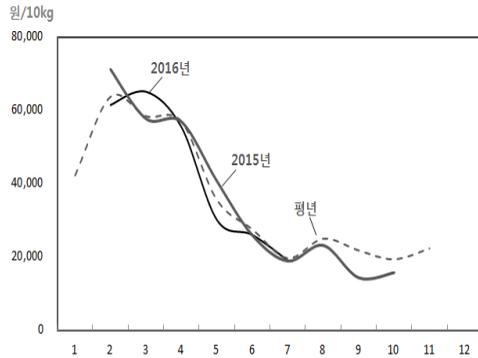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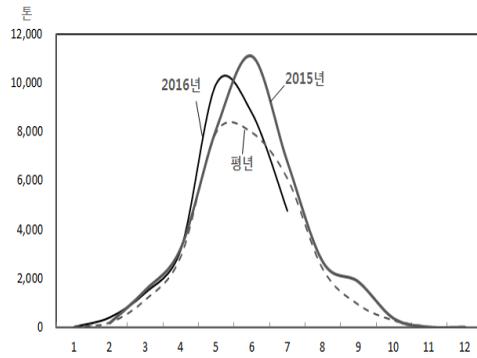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 수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4월 2,570원, 5월 1,810원, 6월 1,550원이었음. 반입량은 감소하였으나 소비가 부진하여 2/4분기 평균가격은 2천원으로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 4% 낮았음.
 - 2/4분기 반입량은 충청·호남지역에서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5% 적었음.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박 도매가격은 상품 1kg에 1,560원으로 전과 평년보다 각각 13%, 7% 높았으며, 반입량은 1만 4,400톤으로 전년보다 47% 적었음.
 - 8월 수박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면적 증가와 전북 고창에서의 노지수박 정식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9월 이후에는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출하량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3/4분기 가격의 경우 8월은 작년 동기보다 상승하겠으나, 9월 이후 출하량이 다소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5.5.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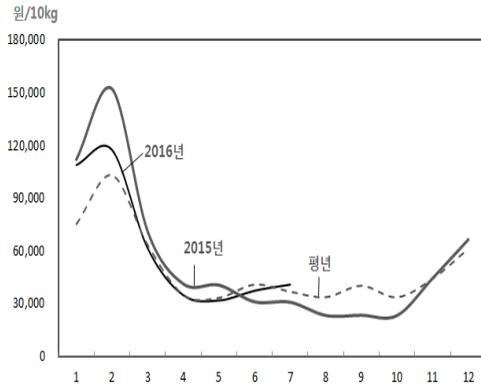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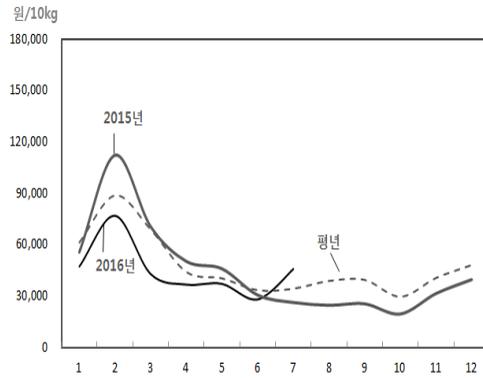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 참외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5만 5,400원, 5월 3만 100원, 6월은 2만 6천원이었음. 반입량은 감소하였으나 소비가 부진하여 2/4분기 평균가격은 3만 7,200원으로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0%, 7% 낮았음.
 - 2/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 적었음. 5월에는 4월 출하지연 물량이 집중되어 전년 동기보다 23% 많았으나, 6월에는 고온 등 기상 악화가 지속되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전년보다 21% 감소하였음.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9천원으로 전년과는 비슷했지만 평년보다는 3% 낮았음. 반입량은 4,800톤으로 전년보다 41% 적었음.
 - 최근 가격 약세 영향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출하를 조기 종료할 농가가 늘어 3/4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기상악화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5.6. 풋고추

청양계 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녹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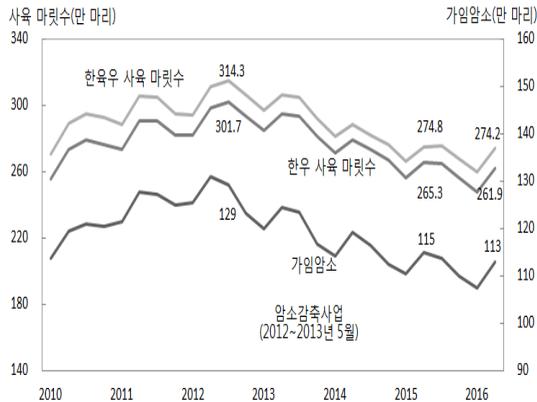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3만 4,900원, 5월 3만 1,800원, 6월에는 3만 7,4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3만 4,7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 낮았음.
 - 청양계풋고추 2/4분기 반입량은 6,659톤으로 경남 밀양과 진주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전년 동기보다 1% 많았음.
 - 녹광풋고추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에는 3만 6,600원, 5월 3만 7천원, 6월은 2만 7,9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3만 3,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 낮았음.
 - 녹광풋고추 2/4분기 반입량은 919톤으로 정식면적이 감소한 영남지역에서 출하가 이어져 전년 동기보다 15% 적었음.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전년보다 32% 높은 4만 900원, 녹광풋고추는 75% 높은 4만 5,700원이었음.

- 청양계꽃고추 7월 반입량은 강원지역의 정식면적 축소로 전년보다 24% 적었음. 노동력 감소 등의 이유로 강원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줄어 녹광꽃고추도 전년보다 27% 적었음.
- 8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량은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줄 것으로 전망됨. 9월에는 재배면적이 확대된 호남지역에서 출하가 시작되겠으나, 강원·충청지역의 면적 축소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8~9월 녹광꽃고추 출하량은 출하비중이 큰 강원지역에서의 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됨.

6. 축산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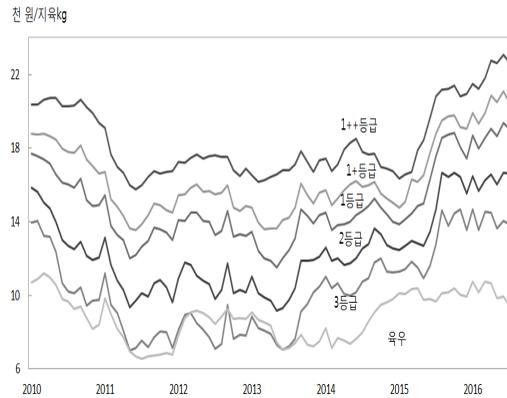
6.1. 한육우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6년 2/4분기 동향
 - 송아지 생산 증가로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월(260만 마리)보다 5.9% 증가한 274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75만 마리보다 0.2% 감소).
 -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274만 마리, 한우 262만 마리, 육우 12만 3천 마리
 - *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113만 마리(전년 동월 115만 마리)
 - 도축 감소와 유통업체 할인행사로 2/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4분기 18,414원/지육kg보다 3.3% 상승한 19,024원임(전년 동기 15,385원보다 23.7% 상승).

1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 이형우(lhw0906@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이지혜(jhl@krei.re.kr), 박근아(pka@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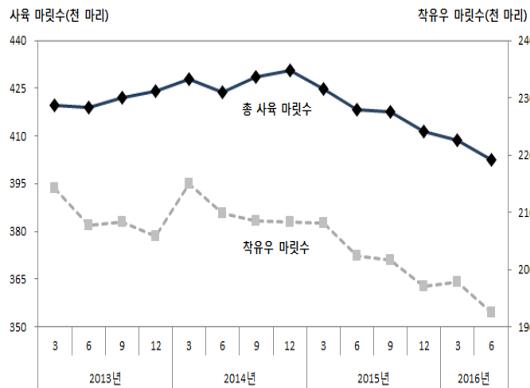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도축 감소로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4분기보다 0.1% 상승한 19,035 원/지육kg이었음(전년 동월 17,565원보다 8.4% 상승).
 - 추석 대비 도축 증가로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6월보다 0.5% 감소한 273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75만 마리보다 0.8% 감소).
 - 8~9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4분기 대비 강보합 수준인 19,000~21,000원/지육kg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8,663원보다 2~7% 상승).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6월(A)	9월(B)	B/A
사육 마릿수	274만 마리	273만 마리	-0.5%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4~6월 18,414원	8~9월 19,000~21,000원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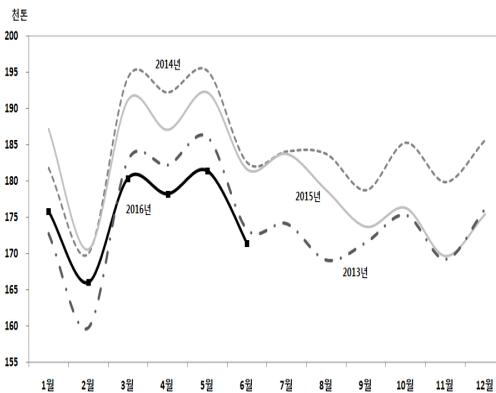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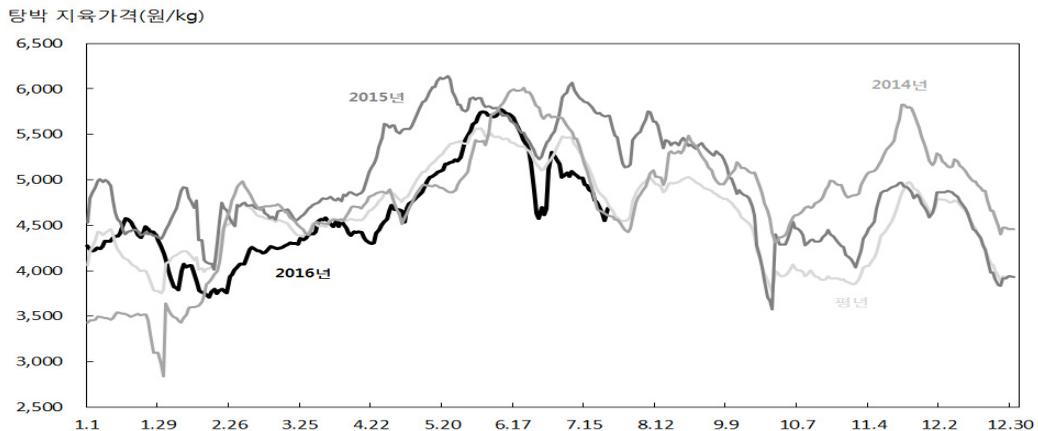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6년 2/4분기 동향
 - 원유 감소 대책의 영향으로 저능력우 도태가 활발히 이루어져 6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보다 3.8% 감소한 40만 2천 마리였음. 착유우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4.9% 감소한 19만 2천 마리임.
 - 착유우 마릿수 감소로 2/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53만 1천 톤임.
 - 2016년(6월 기준) 분유재고량은 전년 동기 보다 25.0% 감소한 1만 5,978 톤임. 분유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히 재고량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원유 생산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3/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8~3.7% 감소한 51만 6천~52만 1천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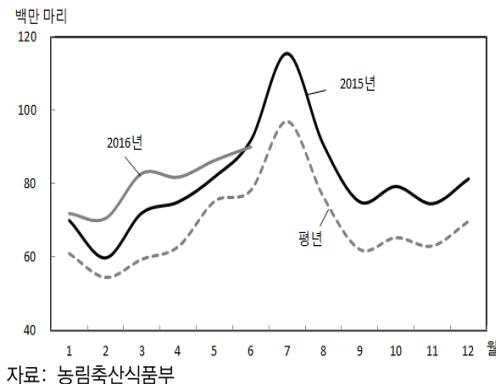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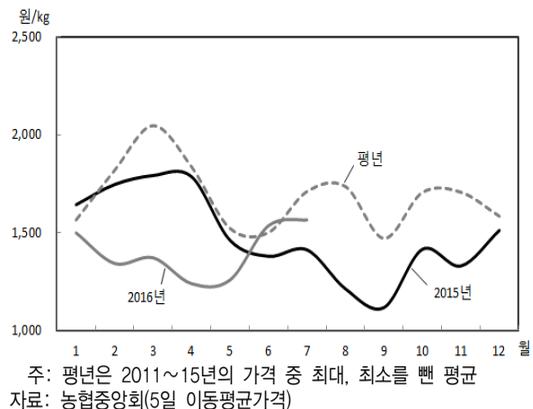
- 2016년 2/4분기 동향
 - 2016년 6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5% 증가한 98만 1천 마리였음. 모든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4% 증가한 1,036만 마리임(통계청).
 - 사육 마릿수 증가로 2/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4.3% 증가한 394만 마리였음(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해 2/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5,489원)보다 9.9% 하락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4,948원이었음.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자돈 생산 증가로 3/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386만 마리로 전망됨.
 - 도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해 2016년 3/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하여 탕박기준 지육 kg당 7월 4,918원, 8월 4,700~5,000원, 9월 4,200~4,500원으로 전망됨.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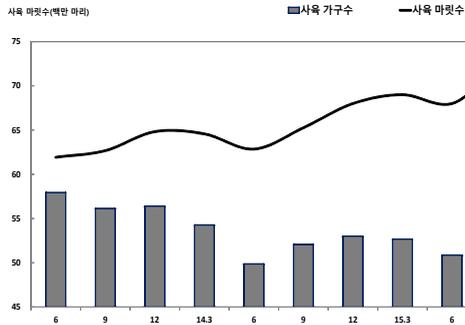
육계 산지가격 동향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환우로 인한 생산기간 연장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종계 총 사육 마릿수는 2/4분기 종계 병아리 입식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2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억 5,816만 마리임.
 - 2/4분기 닭고기 수입은 브라질산 닭고기 단가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 금지조치가 지속되어 검사실적 기준으로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한 3만 278톤이었음.
 - 닭고기 공급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2016년 2/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8% 하락한 1,344원/kg임.
- 2016년 3/4분기 전망
 - 종계 병아리 입식과 도태로 추정된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가 전년보다 높아 3/4분기 도계 마릿수도 전년 동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2.8% 증가한 2억 8,900만 마리로 예상됨.
 - 7월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8월 말~9월 초 미국산 닭고기가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태국산 닭고기의 수입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 닭고기 공급과잉 상황에서 미국과 태국산 닭고기의 수입 재개가 닭고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 7월 육계 산지가격은 닭고기 소비 증가와 계열업체의 구매 확대로 전년보다 10.8% 상승한 1,565원/kg임. 8~9월에는 닭고기 생산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육계 산지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7월: 1,565원/kg, 8월: 1,200~1,400원/kg, 9월: 1,000~1,200원/kg)
- 4/4분기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낮지만 지속적인 환우와 상반기 종계 도태 감소로 인해 병아리 생산이 전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무분별한 종계 환우 자제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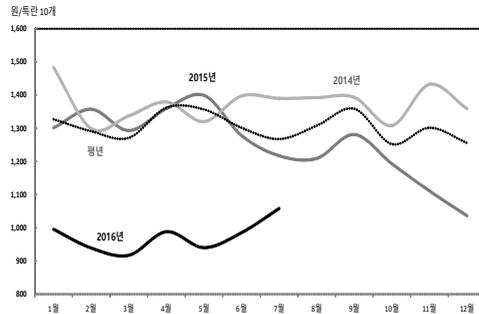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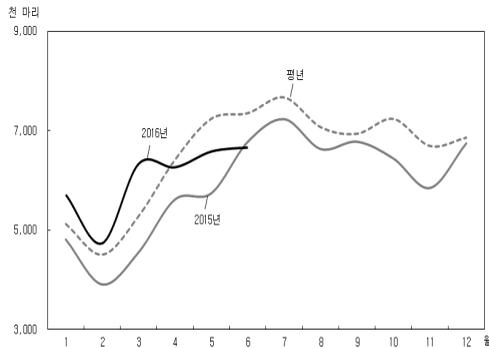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6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마릿수 증가로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0.6% 증가한 6,828만 마리였음.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1,133만 마리로 전년보다 10.4% 감소하였으나, 산란 성계도태는 전년보다 15.7% 증가한 933만 마리였음.
 - 계란 생산량 증가로 2/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7.8% 하락(평년 대비 27.6% 하락)한 971원(특란 10개)이었음.
- 2016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에는 산란 가담 신계군이 증가하나, 성계 도태도 증가하여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병아리 입식이 감소함에 따라 산란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
 - 3/4분기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수준인 1,050~1,250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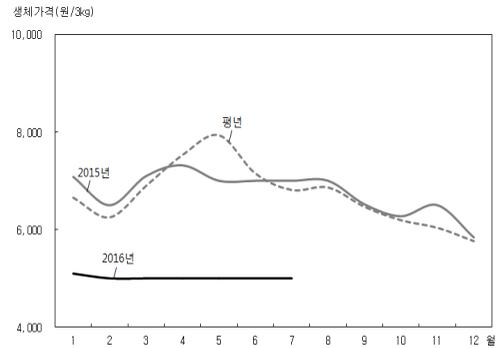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입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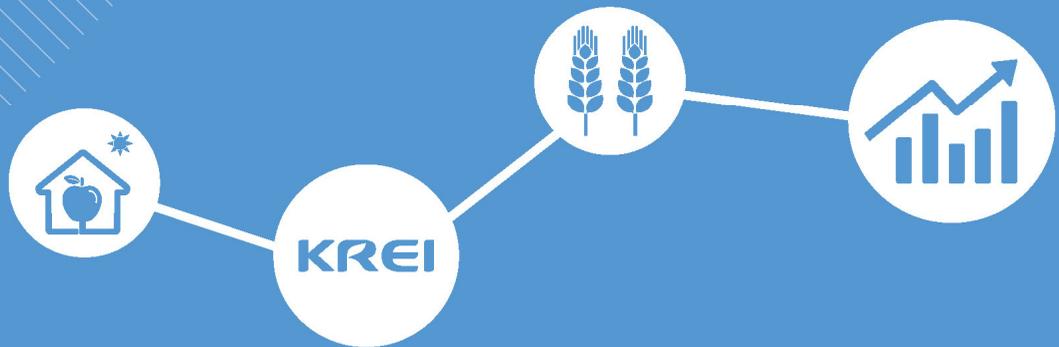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0~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6년 2/4분기 동향
 - 6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071만 마리임. 오리 수급 조절을 위한 종오리 감축으로 종오리의 경우 전년보다 9.5% 감소한 75만 마리였으며, 육용오리는 전년과 비슷한 995만 마리임.
 - 종오리 감축에도 불구하고 육용오리 입식이 증가하여 2/4분기 도입 마릿수는 전년에 비해 7.6% 증가한 1,950만 마리임.
 -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4분기 오리 생체가격(3kg)은 전년 동기보다 29.6% 하락(평년 대비 33.7%)한 5,000원이었음.
- 2016년 3/4분기 전망
 - 육용오리 입식이 많아 6~8월 도입 마릿수는 전년보다 7.7% 증가한 2,217만 마리로 전망됨.
 - 도입 마릿수 증가에 따른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7~8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5,100~5,600원/3kg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 ①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 ②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원*****, 정호연*****

1. 브렉시트의 對세계경제 전망

1.1. 브렉시트의 배경

- 영국(British)의 유럽연합 탈퇴(Exit)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의 이민자 급증에 따른 부담, 영국의 EU내 경제규모 대비 낮은 영향력, EU 분담금의 부담, EU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감 등으로 논의 시작
 - 2013년 캐머런 총리가 2017년 이전까지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함.
 - * 2016년 6월 23일 투표결과 51.9% 찬성, 48.1% 반대로 브렉시트 결정
- 브렉시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EU 금융위기보다는 정치적 사건
 - 브렉시트는 경제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사건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임. 2008년 금융위기의 불확실성 확산 및 증폭의 원인이 금융시스템이었으나, 브렉시트는 경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님.

* 본고는 「농정포커스-제 121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을 참고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shoha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dongsimjst@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shlee@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youmjw@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jeonghy@krei.re.kr)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한 악재였으나, 브렉시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미 알려졌던 악재임.

1.2. 영국의 최근 경제 동향

- EU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세 번째로 큰 영국의 2015년 GDP 성장률은 2.3%로 EU(1.6%), 독일(1.7%), 프랑스(1.2%) 등을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실현함.

* 이는 경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및 소비관련 지표들의 상대적인 호조에 기인함.

EU 주요국의 경제지표 비교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EU	
	'14	'15	'14	'15	'14	'15	'14	'15
경상지수(억 유로)	-1,417	-1,325	2,129	2572	-230	-42	254	334
실업률(%)	6.3	5.4	5.0	4.6	10.3	10.4	11.6	10.9
조제생산증감(%)	2.6	-0.1	1.9	0.4	-0.1	1.7	1.8	1.7
소매판매증감(%)	4.3	4.2	1.4	3.0	2.3	3.8	1.5	2.8

자료: EUROSTAT.

- 영국의 EU역내 상품무역 비중은 49.4%이고, 북미 등 비유럽권 지역과 무역 비중이 높음(2015년 기준).

* EU역내 교역 비중 : 영국(49.4%), 독일(60.3%), 프랑스(63.6%)

* 영국의 교역 비중 : 독일(12.8%), 미국(11.4%), 중국(8.2%), 네덜란드(6.8%)

* 한국과의 교역 비중 : 1.2%, 한국의 對영국 수출비중 : 1.4%(16위)

* 주요 수출품목 비중 : 자동차(8.4%), 금(8.4%), 의약품(5.3%), 티보제트(4.2%)

* 주요 수입품목 비중 : 자동차(7.6%), 의약품(3.2%), 금(3.0%), 무선통신기기(2.9%)

1.3.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외 영향

- 국내외 금융지수 변동
 - 브렉시트 직후 환율, 주가 등 금융지수가 변동함.
 - *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9.91% 폭락하였으며, 유로화 가치 역시 2.57% 하락함.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2.87% 증가함.
 - * 국제유가는 4.58%(Brent) 하락하고, 금값은 4.29% 상승함.
 - 국내시장에서는 코스피 1.30%, 코스닥 1.16%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2.33% 상승, 원/엔화 환율은 4.93% 상승함(6/28 종가 기준).
- 영국 경제 위축 전망
 - 영국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2021년 영국의 GDP 규모는 EU 잔류 대비 3.8~7.5% 감소하며, 1인당 GDP 또한 1,100~2,200파운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브렉시트 이후 10~15년에 걸쳐 영국 경제가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함.

주요 기관별 영국의 브렉시트 영향 전망

기관	실질 GDP 감소폭(%)	기간	비고
OECD	-3.3	2020년	가구당 소득 2,200파운드 감소
	-2.7 ~ -7.7	2030년	EU와의 교역관계 협상이 노르웨이 방식(EU내 상품과 서비스 이동 자유화)으로 이루어지면 GDP 2.7% 감소 EU와의 교역관계 협상이 영국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면 GDP 7.7% 감소
IMF	-1.5 ~ -9.5		
JP Morgan	-1.0	브렉시트 이후 1년간	EU와의 교역관계 재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GDP 감소
Societe Generale	-4.0 ~ -8.0	브렉시트 이후 5년간	EU와의 교역관계 재협상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Morgan Stanley	-1.5 ~ -2.5	브렉시트 이후 2년간	

주: * 영국이 EU에 잔류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기간까지 GDP 규모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의미
 자료: LG 경제연구소(2016)

- 영국의 무관세 수입 비중 20.6%p 감소 전망
 - 완전 무관세였던 역내무역과 FTA 체결국과의 무관세 교역이 관세화 되면서 브렉시트 이전 90.1%였던 무관세 비중은 69.5%로 감소할 전망이다.
 - * 기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등과는 브렉시트 이후 관세율 변동이 없을 것이나, 역내무역과 FTA 체결국과의 무관세 교역 감소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무관세 비율 변화

단위: 억 달러

구분	브렉시트 이전				브렉시트 이후			
	무관세 적용		관세 적용		무관세 적용		관세 적용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EU	1,873	3,238	0	0	1,319	2,250	554	988
FTA체결국	528	666	0	0	371	463	156	203
비 FTA	1,083	1,298	475	570	1,083	1,298	475	570
소계	3,483	5,202	475	570	2,773	4,011	1,186	1,760
비중(%)	88	90.1	12	9.9	70	69.5	30	30.5

주: MFN 무관세율 적용 대상(금액기준)은 영국의 수입 69.5%, 수출은 70.4% 적용
 자료: Eurostat, 영국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이 영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 2015년도 영국의 EU 분담금은 177억 8천만 파운드로 전체 분담금에서 12.6%를 차지하고, 독일(21.4%), 프랑스(15.7%) 다음으로 큰 규모임.
 - * 공적부문 환급금(public sector receipts) 44억 5천만 파운드와 할인금액(rebate) 48억 6천만 파운드를 제외하면 영국의 실질 분담금은 84억 7천만 파운드
 - 공적부문 환급금 대부분은 유럽농업보장기금(EAGF)과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EAFRD)을 통해 농업직불금과 농촌개발지원금으로 지급됨.
 - * 2015년 EU의 對영국 CAP 농업직불금과 농촌개발지원금 예산은 각각 29억 6천만 파운드(66.5%)와 3억 1천만 파운드(7.0%)로 전체 공적부문 환급금 중 73.5%
 - * EU의 전체 직불금과 농촌개발지원금에서 영국의 비중은 각각 8.5%와 2.7%
 - 브렉시트로 EU CAP의 핵심인 직접지불제가 폐지됨으로써 영국 농가소득이 최대 50% 하락할 전망이다(Agra Europe).
 - * 농가 유형별 소득 감소율은 낙농가 16.7%, 혼합농가 44.6%, 저지대 방목농가 48.4%

- 공적부문 환급금이 농업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CAP 직접지불제 폐지가 지역별 농산업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지역간, 계층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함.
 - * 전체 산업에서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브렉시트 반대여론이 컸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CAP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누렸던 영국 농업부문은 브렉시트로 인한 각종 보조금 중단 등의 충격을 완화시킬 제도적 보완·정비가 시급함.
- 세계경제 및 유로존에 미칠 영향
- EU 역내 교역량 감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비 및 투자 감소 등은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교역 둔화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
 - * 주요국의 총수출 대비 對영국 수출비중(% , 2015년) : 아일랜드(13.8), 네덜란드(9.0), 벨기에(8.7)
 -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OECD와 BRICs의 실질 GDP(2018년)는 각각 0.6%p 후퇴할 전망이다.
 - 유럽 주요국의 주가 하락, 파운드화 및 유로화 약세 등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있음.
 - * 파운드화 및 유로화 가치는 영국 국민투표 결정 이후 각각 3.7%, 1.8% 하락
 - 브렉시트는 정치적 사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였을 때, 최근 금융지수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음.
 -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거시지표 변동)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IB)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원/달러 환율은 전년대비 35.5% 상승, 국제유가는 43.1% 하락, 국제곡물 선물가격 하락(옥수수 23.6%, 밀 37.1%, 대두 18.5%)
 - * (브렉시트 전후 거시지표 변동) 브렉시트 발표 전인 6월 23일(목) 대비 28일 원/달러 환율은 2.33% 상승, 국제유가는 5.89% 하락, 국제곡물가격지수(옥수수, 밀, 대두)¹⁾ 1% 내외로 하락
 - 그러나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의 정치력과 행보 및 EU 이사회와 2년간의 탈퇴 협상경과에 따라 국제 금융지수의 변동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는 EU와 세계 경제에 잠재

1) 국제곡물가격지수는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 IGC)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

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브렉시트 거시지표 변동 비교

단위: 달러/배럴, 원/달러, 달러/톤

구분	글로벌 금융위기			브렉시트		
	'07.09~'08.08	'08.09~'09.08	'08/'07(%)	06.23	06.28	'28/'23(%)
국제유가	106	60	-43.10	50	47	-5.89
환율	973	1,319	35.52	1,146	1,173	2.33
밀	326	205	-37.13	167	163	-2.15
옥수수	202	154	-23.64	152	151	-1.10
대두	461	376	-18.49	413	416	0.60

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의 국제유가, 환율, 밀, 옥수수, 콩은 각 연도 9월부터 익년 8월까지 자료를 사용
 자료: EIA, 한국은행, Thomson Reuters

-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 (국제금융시장) 브렉시트는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크고, 파운드화 및 유로화 약세로 이어져 원화의 동반 약세, 외국자본 유출 등 우려
 - (교역부문) 중기적으로 영국과의 교역에서 관세체제와 세관행정의 부재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한·영, 한·EU 간 무역관계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 * 2015년 기준 對영국 수출규모는 73억 9천만 달러로 총 수출액의 1.4% 정도임.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對유럽 투자)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유럽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기존 對영국 투자가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전될 가능성 있음.
 - * 2015년 기준 영국의 對한국 투자규모는 2억 6천만 달러로 총 외국인투자액의 1.2% 수준이므로 직접적인 투자 위축 우려 적음
 -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세계 금융

불안, 경기침체, 소비 위축에 따른 간접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 (수입 원자재) 국제유가 및 수입 원자재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달러강세로 국제곡물 시장의 유동성자금(투기)이 이탈하면서 국제곡물가격 하락 전망
- * (수출입) 원화 평가절하로 단기적으로는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브렉시트의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

2. 브렉시트의 우리나라 농업부문 파급 영향

2.1. 대외 교역여건에 미칠 영향

-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결정은 5~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이사회와의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 한·EU FTA 협정관세를 이 그대로 적용
 - 영국의 최종적인 EU 탈퇴 결정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유럽이사회와의 협상, 유럽의회 승인, 각료이사회 의 가중다수결 투표로 결정됨.
 - * 가중다수결 투표는 역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28개국 중 16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방식
 - * ‘리스본조약’ 제50조는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2년간 회원국과 EU가 맺어온 관계 전반에 관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2년이면 자동 탈퇴 처리
 - 유예기간 동안 영국과 유럽이사회 간 협상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하면, 기존 협정에 대한 효력은 모두 상실됨.
 - 유예기간 동안 영국은 EU 및 제3국과 각종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하였던 모든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됨.
 - * 영국은 한국을 포함한 53개 경제권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
 - 기존 특혜관세가 사라지고 WTO 양허세율(bound rate)범위 내에서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applied rate)을 부과 하게 됨.

- 우리나라 농축산식품의 對영국 교역비중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가 한·영국 농축산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2015년 영국산 수입액은 2.8억 달러(전체 수입액 중 0.9%)로 주로 가공식품(2.4억 달러)을 수입하고 있으며, 위스키는 수입점유율이 96.6%에 달함.
 - 2015년 對영국 수출액은 3,045만 달러(전체 수출액 중 0.5%)이고 주로 가공식품(2,441만 달러)을 수출하고 있음.
 - 영국의 EU 탈퇴 시, 우리나라 對영국 수출 농축산식품은 실행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가격경쟁력 약화가 전망됨.
- 교역여건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변동이 농축산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농축산식품 최대 수출대상국(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액 중 22.2%)이며, 브렉시트에 따른 엔화절상 때문에 우리나라 농축산식품의 對일본 수출이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원화 가치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일본 및 미국 등으로의 농축산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다만, 브렉시트의 여파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의 소비가 위축되면 중장기적으로 농축산식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3. 시사점 및 대응 방향

3.1. 시사점

- 브렉시트는 세계 경기, 국제환율, 국제유가, 국제곡물 및 원자재가격에도 직·간접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폭.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우리나라의 對영국, 對EU 농축산식품 교역량 비중이 낮아,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유예기간) 유예기간 동안 브렉시트의 국내 농업부문 영향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교역액 및 생산액은 소폭 감소하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 브렉시트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였을 때, 최근 금융지수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음
 - * 그러나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의 행보 및 EU 이사회와 2년간의 탈퇴 협상경과에 따라 국제 금융지수의 불확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 함
- (유예기간 이후)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세계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입부담 증가, 소비위축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는 EU와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 존재
-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대외적 환경변화 가능성
 - (국제곡물가격 하락) 브렉시트 이후 28일 국제곡물가격지수(밀, 옥수수, 대두)는 1% 내외로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곡물 수입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 국제곡물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 증가 가능성
 - (미·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지속 및 환율변동) 유럽과 신흥국에 투자된 자본이 미국과 일본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원/달러 환율, 원/엔화 환율 상승하게 됨. 이는 미국과 일본으로의 농축산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 할랄시장으로의 수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미·일 환율 상승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우리나라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 전망
 - (글로벌 경제 불안정 심화에 따른 소비위축) 영국과 EU의 경제가 침체되고, 그 여파가 아시아에까지 미칠 경우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고급농식품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 있음.

- (신고립주의 확산) 탈 EU가 가속화되고 신고립주의가 확산될 가능성 존재. 이 경우 교역에 있어서는 비관세장벽이 강화·급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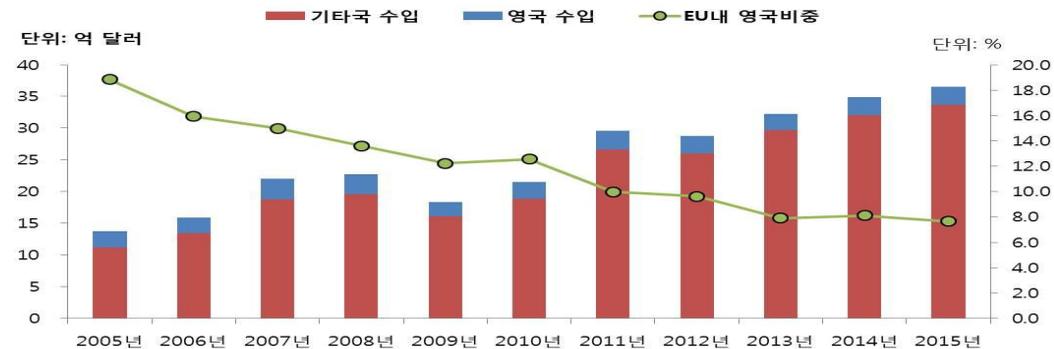
3.2. 정부 대응방안

- 기존 한·EU FTA이행을 점검하고, 가격 경쟁력강화 및 영국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한·영 FTA 및 EU에서 탈퇴하는 국가와의 개별 농업협상 준비가 필요함.
 - * 對영국 수출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한·영국 FTA 대비 필요
 - * 또한,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달러가치 상승 및 일본의 엔고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축산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미국·일본시장 확대를 위한 對미국·일본 농축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함.
-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 등 원자재가격 및 환율변동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對세계 수출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역시 필요함.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불균형과 갈등으로 야기된 브렉시트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간, 산업 간, 특히 농업내부의 소득불균형과 곡물과 축산농가 등 작목 간 불균형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 한-영국간 농축산물 교역 현황

- 2015년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6.5억 달러이며, 그중 영국산 수입액은 2.8억 달러
 - EU산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9년 이후 연평균 12.1% 증가한 반면, 영국산은 3.7% 증가에 그침.
 - * 영국산 수입액이 EU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7.7%까지 하락
 - * 영국산 수입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10년 1.1%, 2015년 0.9%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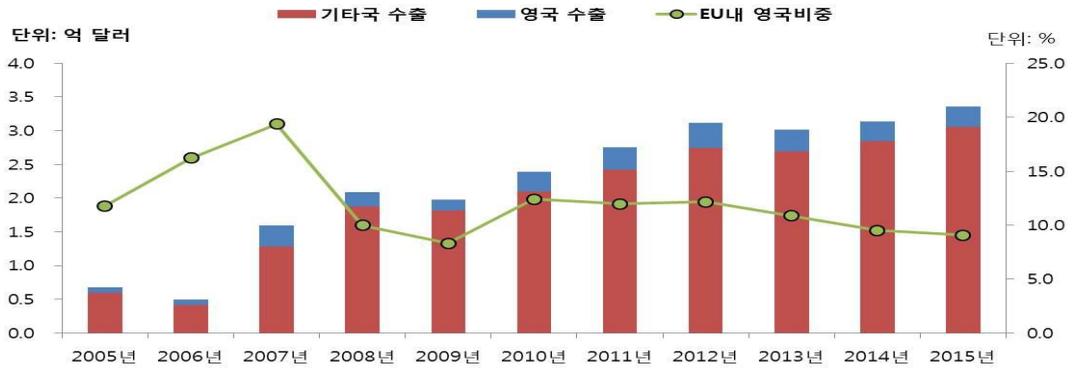
EU 및 영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5년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3.4억 달러이며, 그중 對영국 수출액은 3,045만 달러
 - 對EU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2007년 이후 연평균 9.8% 증가한 반면, 영국산은 오히려 2007년보다 1.3% 감소함.
 - 對영국 수출액이 對EU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9.4%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9.1%까지 하락함.
 - * 對영국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4%에서 2007년 0.9%로 상승, 2015년 0.5%로 하락

對EU 및 對영국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우리나라는 영국으로 주로 가공식품(2,441만 달러)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공식품 수출액의 0.6% 수준
 - 품목별로, 라면(644만 달러, 2.5%), 혼합조제식료품(446만 달러, 0.7%), 기타 음료(350만 달러, 1.9%), 김치(192만 달러, 2.1%), 고추장(61만 달러, 1.8%) 등이 있음.
 - 그 외에 감귤(54만 달러, 22.2%), 채소종자(28만 달러, 0.8%), 기타 과실(15만 달러, 1.5%) 등을 수출함.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국승용**, 최지현***

1. 국내 기능성식품산업 동향

- 기능성 식품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05년 이후 연평균 9%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함. 하지만 최근 건강기능식품¹⁾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9%에 불과함.
- 2012년 식품산업은 전년 대비 7% 성장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산업은 5% 성장하였고, 식품산업이 3% 성장했던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오히려 1% 감소함. 즉, 건강기능식품의 성장률이 식품산업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비교적 판매 비중이 높은 비타민과 미네랄류, 홍삼제품, 개별인정형²⁾ 제품 등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였음. 이들 주요 품목의 판매 확대에 힘입어 '09~'11년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은 매년 10% 이상 빠르게 성장함. 그런데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을 주도했던 홍삼, 비타민, 알로에 등의 판매는 정체·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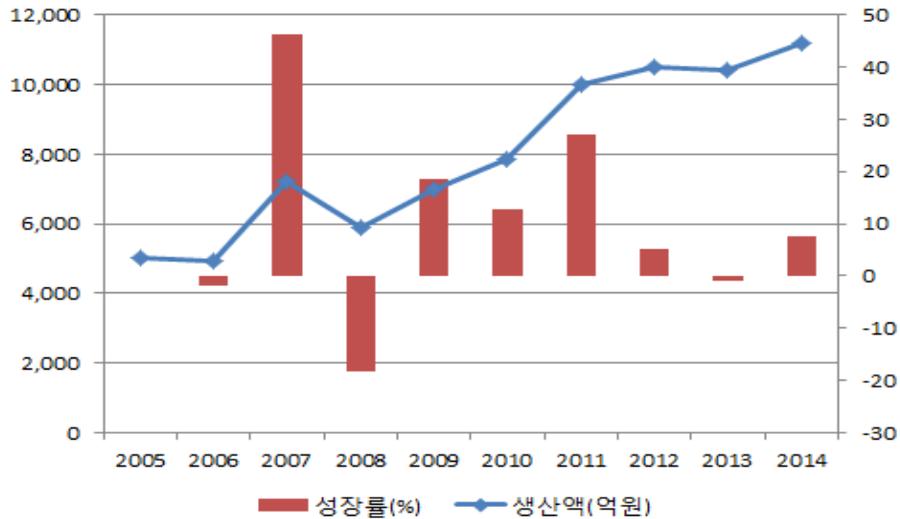
* 본고는 「농정포커스 -제 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을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gouksyl@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jihchoi@krei.re.kr)

- 1)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의미함.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인정된 식품만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됨.
- 2)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된 원료는 별도의 인정 과정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비타민이나 칼슘, 철, 셀레늄 등의 미네랄류, 식이섬유, 홍삼, 알로에,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고시형 기능성 원료임. 새롭게 기능성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업자가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개별업자에 의해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개별인정형으로 분류함. 헛개추출물, 구기자추출물 등이 대표적인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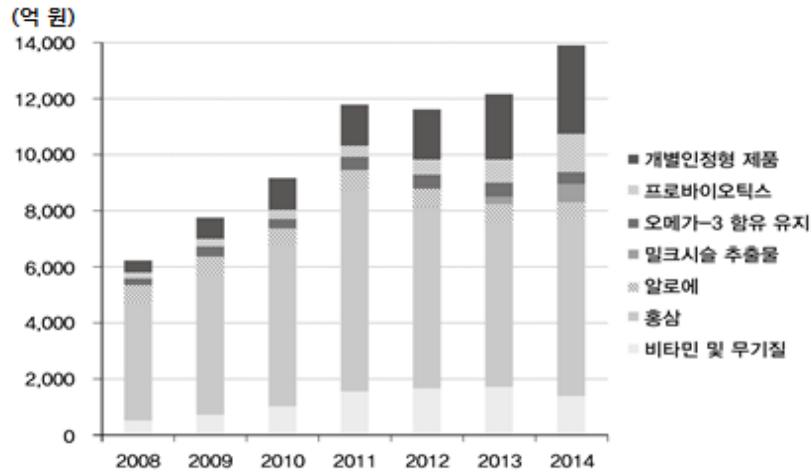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 생산액과 성장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식품의약품산업동향통계.

-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유행에 민감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약 150종의 기능성 원료가 출시되어 있고, 새롭게 개발된 건강기능식품도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나 밀크시슬 추출물과 같이 새롭게 주목을 받는 기능성 원료의 판매가 최근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함. 2014년 건강기능식품 총 판매액은 전년 대비 약 1,500억 원 증가하였으나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시슬 추출물 등의 판매 증가액 합계가 약 1,800억 원임. 즉, 기존 주력 제품의 판매는 감소하고, 개별인정형을 포함해 새로운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실적에 의해 시장의 성장이 영향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 주요 품목별 판매액 추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연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4% 수준에 머문 이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12년 세계 건강 관련 식품³⁾ 시장규모는 약 3,464억 달러이고, '11~'12년 기간 7% 수준의 성장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품목은 식이보충제(Supplements)이며, 2012년 기준 세계 시장규모는 약 961억 달러이고 7%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3) 식이보충제, 자연·유기식품, 기능강화식품 등 건강·미용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연도별 세계 건강식품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e)	2014(e)	2015(e)	2016(e)
Supplements*	매출액	803	846	902	961	1,034	1,100	1,179	1,265
	성장률	4.8%	5.4%	6.5%	7.0%	7.6%	6.4%	7.1%	7.3%
Natural/ Organic Food	매출액	782	838	915	1,010	1,116	1,231	1,357	1,490
	성장률	3.8%	7.2%	9.2%	10.3%	10.5%	10.4%	10.2%	9.8%
N&OPC& Household Products**	매출액	285	310	339	374	411	452	496	539
	성장률	5.2%	8.7%	9.4%	10.3%	9.9%	9.8%	9.7%	8.7%
Functional Food	매출액	964	1,009	1,061	1,119	1,180	1,247	1,315	1,383
	성장률	2.3%	4.7%	5.1%	5.5%	5.5%	5.7%	5.5%	5.2%
Total Nutrition Sales	매출액	2,834	3,004	3,217	3,464	3,741	4,029	4,347	4,677
	성장률	3.7%	6.0%	7.1%	7.7%	8.0%	7.7%	7.9%	7.6%

* 식이보충제

** Natural & Organic Personal Care & Household Products

자료: Nutrition Business Journal,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건강기능식품협회, 2014)" 에서 재인용.

- 세계 식이보충제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34%), 서유럽(17%), 중국(12%), 일본(11%) 순임. 각국의 식품산업에서 식이보충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5.2%, 일본 4.5%, 중국 2.7%임. 2012년 기준 식이보충제 시장은 미국이 전년 대비 7.5%, 중국이 11.7% 성장하는 등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13년 기간 동안 1.9%에 머물고 있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비중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수입액의 규모가 최근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성장률이 연 4%에 미치지 못했으나 수입액은 5.6%로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함.

건강기능식품 생산액과 교역액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2011	9,995	556	3,743
2012	10,525	585	3,550
2013	10,420	754	3,863
2014	11,208	670	4,40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식품의약품산업동향통계.

- 해외 건강식품⁴⁾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건강식품 해외 직구는 2,605천 건으로 전체 직구의 16%(1위)로 나타남.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수입과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소비는 확대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의 개념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시된 식품을 의미함.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며 기능성은 영양소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등으로 구분됨.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기능이 영양소 기능에 해당함.
-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과 같이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 있음을 나타냄. 생리활성 기능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과 같이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생리적 작용에 유용한 기능이 있음을 나타냄.

4)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건강식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수입액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 생리활성 기능은 1~3 등급으로 구분하며 인과성의 정도가 상이함. 1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며, 2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고, 3등급은 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
- 기능성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됨. 고시형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준과 규격을 고시한 원료로 누구든지 기준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음. 개별인정형 원료는 별도로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을 신청한 업체만이 해당 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개별인정형 원료가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치고 그 결과를 인정받아야 함. 개별인정의 경우 업체와 원료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4년 내외의 시간, 5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 건강기능식품은 정부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증’하지는 않되, 생산자가 수행한 임상실험과 안전성 검사가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지를 ‘인정’하는 체계로 운영됨. 즉, 정부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다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실험과 검증을 실시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식이보충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식이보충제 또는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사용됨.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제도적 용어는 건강기능식품이 유일하며 해당 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국민영양조사의 문항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에 대한 문항이 있음. 이는 관련 기관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법적으로는 건강기능식

품만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법적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국민들이 기능성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는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 용어임. 식이보충제는 비타민, 무기질, 허브 등 식물성분, 아미노산,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농축물, 대사산물, 구성요소, 추출물 혹은 이에 포함된 성분 등의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의미함. 유럽에서는 미국의 식이보충제와 유사한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미국 식이보충제의 건강 강조 표시(Health Claim)는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관한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부기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함. 이 밖에 구조/기능 강조 표시(Structure/Function Claim)는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시하고 시판 후 30일 이내에 정부기관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또한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Nutrient Content Claim)를 통해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의 양을 표시함.
- 미국의 식이보충제는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건강 강조 표시 식품과 우리나라에는 관련 제도가 없는 구조/기능 강조 표시 식품을 포괄함. 즉, 미국의 식이보충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식이보충제, 건강보조식품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능성 식품 관련 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승인한 기능성 식품을 특정 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음. 특정 보건용 식품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 기능에 대응하고 영양기능식품은 영양소 기능에 대응함. '15년부터 사전 신고를 통해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됨.

기능성 식품 개념과 표시에 대한 제도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명칭	건강기능식품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	보건기능식품/기능성 표시 식품
표시	영양소 질병 발생 위험 감소 생리 활성화	(제한적) 건강 강조 구조/기능 강조 영양소 함량 강조	특정 보건용 영양 기능 기능성 표시
승인	고시 또는 사전 승인	(제한적) 건강 강조는 사전 승인 구조/기능은 사후 통지	특정 보건용·영양 기능은 고시 또는 사전 승인 기능성 표시는 사전 신고

- 외국에서 식이보충제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도 국내에서 그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없음. 즉, 해외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라도 국내에서는 기능성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음.
- 외국과 비교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더디고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낮은 것은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사후 통지 또는 사전 신고 방식으로 완화된 내용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반면 식품산업 입장에서는 이미 기능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거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기능성이 입증된 식품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소비자는 정부가 인정한 기능성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의 기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이처럼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비교적 엄격한 사전 승인 제도와 상대적으로 완화된 표시 제도를 병행하는 기능성 식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의 문제점

3.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이보충제에 대한 표시 제도 미비

- 법적으로 식품의 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으나 식이보충제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기능성 식품을 건강기능식품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이보충제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음.
- 한방 등 임상을 통해 기능성이 입증된 농산물이나 원료 성분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년간 수억 원의 개발비가 소요됨. 해외에서 새로운 기능성 원료가 개발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기능성 원료로 고시하지 않으면, 개별 업체가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개별인정을 받아야 함. 이같은 비용 때문에 중소기업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참여하기 어려움. 이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개발비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건강기능식품 관련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출시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능성 식품 시장 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일 수 있음.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식이보충제 구매가 확대되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다 할 수 없음.
- 2014년 기준 454개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 매출액 10억 원 미만 업체의 비중이 74%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26개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 총 매출액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음.

- 또한 건강기능식품 품목 기준으로 홍삼제품의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특정 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우려도 있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약 3,177억 원 규모이나 원료수가 약 175종, 제품수가 1,153종에 달해 제품당 평균 판매액은 약 2.8억 원에 불과함.
- 미국은 1994년부터, 일본은 2015년부터 사후 통지 또는 사전 신고 방식으로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는 태블릿이나 캡슐처럼 식이보충제 형태의 식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식초 등의 일반식품, 무알코올 맥주와 같은 음료 등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협소한 해석

-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에 의하면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됨.
- 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의 별표에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1~3등급으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 등급 및 내용을 규정함.
-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식품정책과는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main/main.jsp)를 통해 생리활성 기능으로 31개 기능성⁵⁾을 제시하고 있음. 이처럼 기능성을 31개로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기능성을 규정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인지 관행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음.

5) 홈페이지의 설명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로서 31개의 기능성(아래 표 참조)이 있습니다'로 되어 있음.

생리 활성 기능(2014.11.30.)

번호	기능성 분야	번호	기능성 분야	번호	기능성 분야
1	기억력개선	9	관절/뼈건강	17	칼슘흡수 도움
2	혈행개선	10	전립선건강	18	요로건강
3	간건강	11	피로개선	19	소화기능
4	체지방감소	12	피부건강	20	항산화
5	갱년기여성 건강	13	콜레스테롤 개선	21	혈중중성지방개선
6	혈당조절	14	혈압조절	22	인지능력
7	눈건강	15	긴장완화	23	운동수행능력향상 /지구력 향상
8	면역기능	16	장건강	24	치아건강
25	배뇨기능 개선	26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	27	갱년기 남성건강
28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29	정자 운동성 개선	30	유산균 증식을 통한 여성의 질 건강
31	어린이 키성장 개선				

자료: KFDA 건강기능식품(<http://www.foodnara.go.kr/hfoodi/main/sub.jsp?pageCode=9>: 2016. 5. 12.).

- 소비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는 식품의 기능성을 법령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무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와 같이 31개 항목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움. 또한 관련 제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31개 기능성 외에 생리활성 기능성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미국의 사후 통지 제도인 구조/기능 강조 표시제하에서는 ‘심장병의 주요 요소인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현미).’,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항산화제로 노인 황반 변성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줍니다(토마토).’ 등의 표시가 가능함(이용선 외 2009, 농어업·농어촌 미래전략과제 정책화 방안 연구).
-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활용하여 ‘본 제품은 쌀 유래 글루코 실 세라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유래 글루코실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습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부 토닝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L-세린이 포함되어므로, 수면의 질 향상(잠들기 개선, 숙면 느

김 개선, 기상 시의 만족감)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불만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본 제품은 GAB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ABA는 사무적인 작업에 따른 일시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제품에는 루테인·아스타잔틴, 시아니딘-3-글루코시드, DHA가 포함되므로 손의 초점 조절 기능을 돕고 눈의 사용에 의한 어깨, 목덜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등의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의 기능성 표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기능성을 31개 항목으로 제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법령의 기능성 표시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3.3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제도 미비

-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은 음식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식의동원(食醫同源)’, ‘식약동원(食藥同源)’ 등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기능성 식품에 대한 논의는 일반 식품과는 외형상 구분되는 식이보충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에 따르면 농산물은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될 수 없으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의하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음. 다만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허위표시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제3조), 사업자는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음(제5조). 즉,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실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음. 그런데 표시의 내용과 실증의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 등의 조항은 있으나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최근(16. 4. 2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식품표시법안」에 의하면 식품에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제12조), 식품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동 법안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하고 있음.
- 미국의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조/기능 강조 표시에 대한 산업 가이드라인 (Guidance for Industry: Structure/Function Claims,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을 통해 관련 법령의 의미를 해설하고 다양한 조건을 나열하면서 표시 가능 또는 불가능한 내용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요약하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이 없어 자율적 표시가 가능하나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입법예고된 식품표시법이 시행될 경우 기존 법령과 달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식품위생법령의 표시 관련 규정〉

○ 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총리령)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중략)...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후략)...

○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중략)...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후략)...

4.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제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관할하며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능성 표시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일본이나 미국은 하나의 제도 내에서 제조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일괄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제조식품과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표시에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농산물을 표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농산물의 품질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제조식품을 관할하는 건강기능식품법령과 농산물을 관할하는 법령을 모두 개선해야 농식품 전반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4.1 기능성 원료와 성분의 확대, 인정 절차 개선

- 2016년 4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소 28종, 기능성 원료 60종 등 총 88종의 성분을 기능성 원료로 고시함. 최근 수년간 고시형 원료의 종류는 별다른 변화 없이 88종이 유지되고 있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체계에 의해 고시형 원료 추가에 따른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원료나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인정형으로 출시될 수밖에 없음.
- 해외 직접구매 등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변화되고 있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에서 기능성을 승인받은 성분에 대해, 업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심의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고시하는 등 기능성 원료와 성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국내 식품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개별인정 절차의 정비도 요구됨. 관계 당국에서는 정부가 허가하는 것이 아

나라 업체가 고시 등 지침에 따라 개발한 원료를 ‘인정’하므로 민간의 자율성이 강화된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일부 기업은 일반적으로 타 인증 제도에서 정부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인정’은 그 절차상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하여 허가보다 엄격한 규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의 고시를 확대하고 개별인증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4.2 새로운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기능성 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기능성 식품의 사전 승인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음. 임상실험 등을 통해 기능성 식품 섭취와 건강 개선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심의하고 이를 인정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근간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미국, 일본 등은 기능성 원료의 사전 승인 제도와 별개로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정한 기능성을 가진 식품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능성 식품의 구매를 원하고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할만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판매 개시 후 30일 이내 통지를 하도록 하면서 제조업자가 기능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기준과 입증의 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보유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판매 60일 이전에 표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소비자가 상담하고 문제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이 필요함. 미국과 같이 기능성 식품을 관리하는 법령(건강기능식품법령) 내에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기능성 식품 표시제 도입 시 허위·과장 표시,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기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 창출에 의한 기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위축을 우려할 수 있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순기능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함.
-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4.3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 현행 제도하에서 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며, 다만 허위·과장·비방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사후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음.
- 농산물의 생산단위는 농가인데, 농가 차원에서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표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음. 또한 관계 당국에서 표시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기 곤란함.
-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FDA와 같이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누구든 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될 우려 없이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발견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는 농산물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소비자청은 기능성표시 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미국 FDA의 표시 가이드라인이나 표시 표준 문안,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신고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의 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식품산업진흥법령 내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 예고한 「식품표시법」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던 표시규제의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라는 정부의 규제 개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서와 같이 「식품표시법」에서도 농산물을 표시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